

정책연구 2004-01

2004정 월대보름 들불축제
평가보고서

2004. 2

제주발전연구원

I.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 지난 1997년 이후 8회째를 맞는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는 북제주군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제주지역의 경제·문화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화합과 위상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2002년 부터는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관람객의 만족도, 관광객 유인효과,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보다 발전적인 축제의 방향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 특히 2004년 들불축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상당한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04년 축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어떠한 부분이 개선되었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2004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하고, 2002년, 2003년 축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보다 발전되고 세계적인 축제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의사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 이와 같은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 2004년 축제에 대한 언론보도 및 여론에 대한 내용분석 및 2002년, 2003년 축제와의 비교분석을 한다.
 - 축제관람객의 행태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하여 개선점 등을 파악하고,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계측한다.

3. 연구 방법

- 문헌연구와 자료분석(literature study and data analysis)
-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외 사례분석(case study)
- 관람객 만족도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empirical study)

4.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2004년 1월 30일~31일(축제기간 2일간)
- 공간적 범위 :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일대(약 20만평)
- 내용적 범위
 - 제1장은 연구의 개요 부분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과 범위를 기술하였다.
 - 제2장은 축제 후의 신문보도 내용 및 여론에 대한 내용분석 부분으로 이를 통하여 축제의 현 위치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제3장은 관람객 행태 및 만족도 분석 부분으로 들불축제에 참여한 관람객들의 행태와 들불축제에 대한 만족도 정도를 분석하였다.
 - 제4장은 들불축제에 따른 관광객 수요증가 및 소비·투자지출액을 추정하는 부분으로 축제가 유인한 관광객 수 등을 추정하였다.
 - 제5장은 들불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인 관광객, 관광수입, 생산(산출), 고용 그리고 소득 증대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 제6장은 종합요약 및 정책제언 부분으로 2002년, 2003년 축제와의 비교 분석 등 제분석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들불축제의 개선점 및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Ⅱ. 신문보도 및 여론 내용분석

1. 분석 목적

- 신문보도 및 여론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특히 적합한 질적 연구기법중의 하나로서 인간의 행태를 직접 관찰하거나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하지 않고 조사자가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관찰·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언론보도 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향후의 변화 흐름과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탐색할 수 있다.
- 들불축제 관련 신문보도 및 여론에 대한 내용분석의 목적은 들불축제를 대상으로 하여, 현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들불축제는 어느 수준이며, 그 특성은 무엇이고, 향후 들불축제가 어떠한 형식으로 변화되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2. 분석 방법 및 범위

-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04년 1월 29일 들불축제 개막 전날 이후 2월 23일까지 보도되고 제안된 내용들이다.
- 분석의 대상범위는 제주도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인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이상 가나다 순)에 게재된 들불축제와 관련된 기사들과 북제주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의견 등이다.
- 분석을 위해서는 3개 일간지와 북제주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들불축제 관련 기사 및 의견을 크게 긍정적 내용, 부정적 내용, 홍보성(캠페인)성 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 분석 결과

- 검색결과 들불축제 관련 내용은 3개 일간지의 기사 44건, 북제주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내용 8건 등 총 52건이 본 분석에 관련된 기사와 내용으로 검색되었다.
- 총 52건의 기사 및 여론은 게재지별로는 제민일보 15건, 제주일보 8건, 한라일보 21건, 북군 홈페이지 8건이었고, 내용별로는 긍정적 내용 11건, 부정적 내용 6건, 홍보(캠페인)성 내용 35건으로 나타났다.

<표 2-1> 기사 및 여론 내용분석

구 분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	북군 홈페이지	합계
긍정적 내용	3건	2건	4건	2건	11건 21.2%
부정적 내용	2건	-	-	4건	6건 11.5%
홍보(캠페인)성 내용	10건	6건	17건	2건	35건 67.3%
합계	15건 28.8%	8건 15.4%	21건 40.4%	8건 15.4%	52건 100%

4. 주요 내용

- 조명과 레이저쇼를 통해 소원기원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은 물론 볼거리를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교통체증, 편의시설 부족 해소를 포함한 축제장 종합 관리·운영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쓰레기 배출 및 수거실태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지럽게 주차된 차량과 축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천막이 난립하는 등 조망을 흐리게 하고, 전체적인 축제장 배치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Ⅲ. 관람객 행태 및 만족도 분석

1. 조사 설계

가. 조사 목적

- 들불축제 관람객의 참여행태 및 축제의 행사프로그램, 편의시설, 접근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만족도 정도를 파악하여 들불축제의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 모집단 : 들불축제에 참가한 내국인관광객과 제주도민
- 표본크기 : 421명
- 표본추출방법 : 무작위 표본추출법
- 자료수집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
- 조사방법 : 1대1 개별 면접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법
- 조사기간 : 2004년 1월 30일 ~ 2004년 1월31일

다.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 조사요원들이 설문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설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예비조사를 통해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하여 직접 방문을 통한 자기기입식설문지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과정을 거쳐,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거주지별, 여행의 주된 목적별, 들불축제 관람회수 등의 의견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평균차이 검정인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 설문지는 총 500부를 배포하여 450부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450부 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설문지 29부를 제외한 421부를 유효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표 3-1> 설문회수 현황

배포	회수	회수율	채택	채택율
500부	450부	90%	421부	93.5%

2. 분석 결과

가. 응답자 특성

- 성별은 남성 205명(48.8%), 여성 215명(51.2%)으로 나타났다.
- 연령은 20세 미만 82명(19.5%), 21~30세 137명(32.6%), 31~40세 101명(24.0%), 41~50세 76명(18.1%), 50대 이상 24명(5.7%)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은 제주도(북제주군 제외) 230명(54.6%), 북제주군 96명(22.8%), 타시·도 94명(22.1%), 외국인 및 기타 2명(0.5%)으로 나타났다.
- 학력은 중졸이하 35명(8.3%), 고등학교재/졸 175명(41.6%), 대학재/졸 202명(48.0%), 대학원재/졸 9명(2.1%)으로 나타났다.

<표 3-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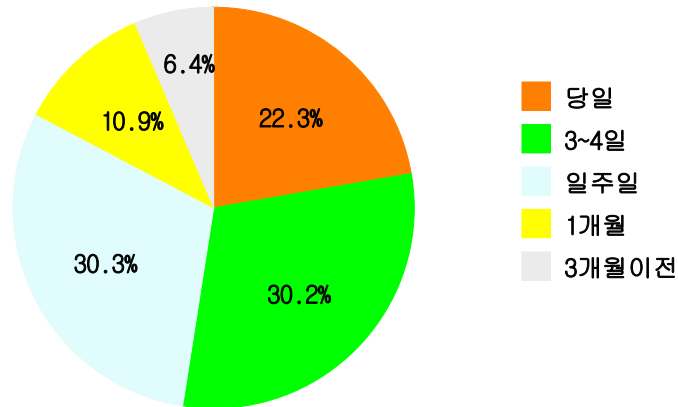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성 별	남성	205	48.8
	여성	215	51.2
	전체	420	100.0
연 령	20세 미만	82	19.5
	21~30세	137	32.6
	31~40세	101	24.0
	41~50세	76	18.1
	50대 이상	24	5.7
	전체	420	100.0
거주지역	제주도(북제주군 제외)	230	54.6
	북제주군	96	22.8
	타 시·도	93	22.1
	외국 및 기타	2	0.5
	전 체	421	100.0
학 력	중졸 이하	35	8.3
	고등학교 재/졸	175	41.6
	대학 재/졸	202	48.0
	대학원 재/졸	9	2.1
	전체	421	100.0

나. 관람객 행태 및 집단별 인식차이 분석

1) 관람여부 결정시기

- 들불축제 참여에 대한 관람여부 결정시기는 당일 94명(22.3%), 3~4일전 127명(30.2%), 일주일 이전 127명(30.29%), 1개월 이전 46명(10.9%), 3개월 이전 27명(6.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축제 관람여부 결정시기에 대한 빈도분석



- 거주지역별로 들불축제 관람여부 결정시기를 보면 제주도민은 3~4일전(31.3%), 북제주 군민 1주일 이전(34.4%), 타 시·도 및 외국인 관광객은 3~4일 이전(34.7%)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 외국인 관광객인 경우 표본이 2명으로 조사되어 타 시·도 참가자 표본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표 3-3> 거주지별 관람여부 결정시기에 대한 교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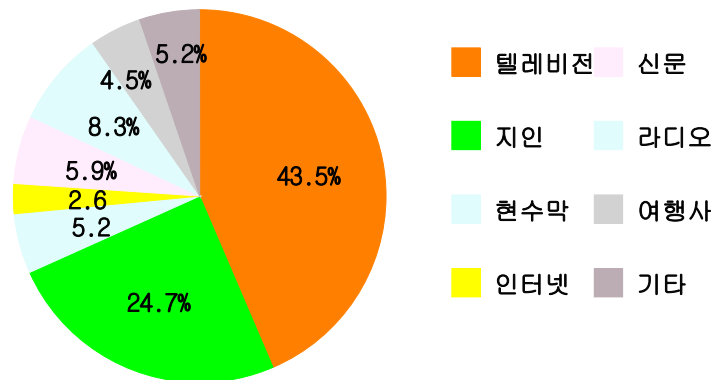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당일	3~4일전	1주일 이전	1개월 이전	3개월 이전	계	통계량
제주도	61(26.5)	72(31.3)	65(28.3)	24(10.4)	8(3.5)	230(100)	X ² =22.007 p=0.005
북제주군	14(14.6)	22(22.9)	33(34.4)	13(13.5)	14(14.6)	96(100)	
타 시·도 및 외국인	19(20.0%)	33(34.7)	29(30.5)	9(9.5)	5(5.3)	95(100)	

2) 정보원

- 들불축제에 관한 정보원 분석을 보면 텔레비전 183명(43.5%), 지인 104명(24.7%), 현수막 22명(5.2%), 인터넷 11명(2.6%), 신문 25명(5.9%), 라디오 35명(8.3%), 여행사 19명(4.5%), 기타 22명(5.2%)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축제 정보원에 대한 빈도분석



- 거주지역별 들불축제 정보원 분석을 보면 제주도민 텔레비전(51.3%), 북제주군민 텔레비전(41.7%), 타 시·도 관광객 텔레비전(26.3%) 등으로 나타나 텔레비전을 통해 들불축제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얻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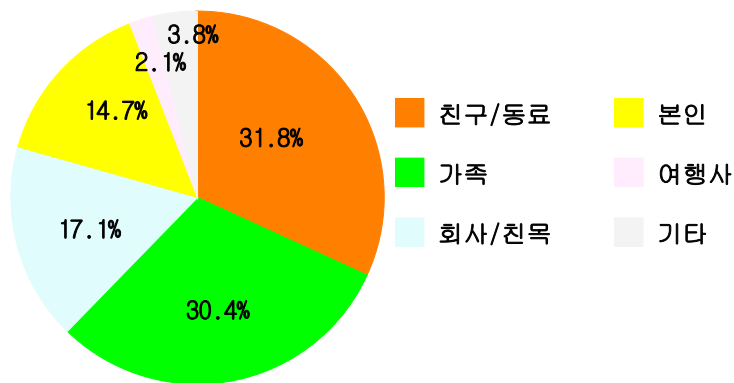
<표 3-4> 거주지별 정보원에 대한 교차 분석

구 분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여행사	지인	현수막	인터넷	기타	계	통계량
제주도	118 (51.3)	20 (8.7)	9 (3.9)	3 (1.3)	66 (28.7)	4 (1.7)	4 (1.7)	6 (2.6)	230 (100)	X ² =85.050 p=0.000
북제주군	40 (41.7)	6 (6.3)	6 (6.3)	-	22 (22.9)	8 (8.3)	3 (3.1)	11 (11.5)	96 (100)	
타 시·도	25 (26.3)	9 (9.5)	10 (10.5)	16 (16.8)	16 (16.8)	10 (10.5)	4 (4.2)	5 (5.3)	95 (100)	

3) 관람여부 결정 형태

- 들불축제 참여에 대한 관람여부 결정형태는 친구·동료 134명(31.8%), 가족 128명(30.4%), 회사·친목 72명(17.1%), 본인 62명(14.7%),기타 16명(3.8%), 여행사 9명(2.1%)순으로 나타나 친구·동료가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축제 관람여부 결정 형태에 대한 빈도분석



- 거주지역별 들불축제 관람여부 결정형태를 보면 북제주군민 회사/친목단체(32.3%), 제주도민 친구/동료(41.7%), 타 시·도 및 외국인은 가족(46.3%)으로 나타났다.

<표 3-5> 거주지별 관람여부 결정형태 교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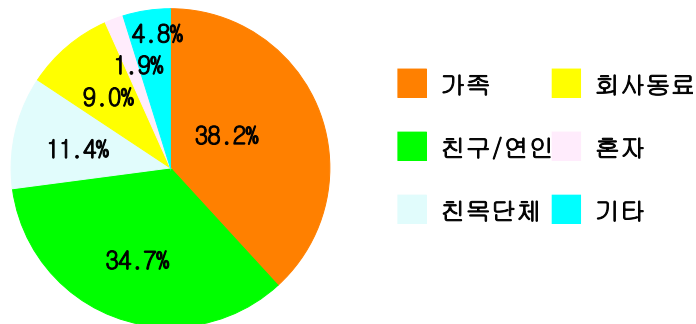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본인	가족	친구· 동료	회사· 친목	기타	여행사	계	통계량
제주도	33 (14.3)	59 (25.7)	96 (41.7)	34 (14.8)	7 (3.0)	1 (0.4)	230 (100)	X ² =67.128 p=0.000
북제주군	19 (19.8)	25 (26.0)	14 (14.6)	31 (32.3)	6 (6.3)	1 (1.0)	96 (100)	
타 시·도	10 (10.5)	44 (46.3)	24 (25.3)	7 (7.4)	3 (3.2)	7 (7.4)	95 (100)	

4) 관람 동행인

- 들불축제 관람 동행인은 가족 161명(38.2%), 친구/연인 146명(34.7%), 친목단체 48명(11.4%), 회사동료 38명(9.0%), 혼자 8명(1.9%), 기타 20명(4.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축제 관람 동행인에 대한 빈도분석



- 거주지역별 들불축제 관람동행인을 보면 제주도민은 친구/연인(43.0%), 북제주군민은 가족(32.3%), 타 시·도 관광객은 가족(54.7%)으로 나타나 주로 가족과 함께 들불축제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3-6> 거주지역별 동행인에 대한 교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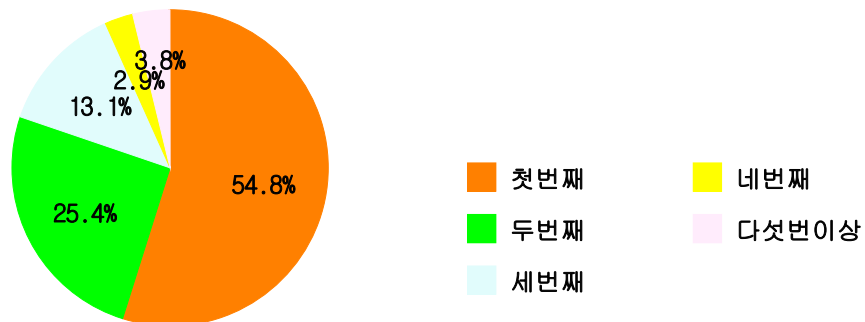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혼자	가족	친구/연인	회사동료	친목단체	기타	계	통계량
제주도	2(0.9)	78(33.9)	99(43.0)	14(6.1)	27(11.7)	10(4.3)	230(100)	X ² =45.768 p=0.000
북제주군	3(3.1)	31(32.3)	20(20.8)	17(17.7)	16(16.7)	9(9.4)	96(100)	
타 시·도	3(2.2)	52(54.7)	27(28.4)	7(7.4)	5(5.3)	1(1.1)	95(100)	

5) 관람 회수

- 들불축제 관람회수에 대해서는 첫번째 231명(54.9%), 두번째 107명(25.4%), 세번째 55명(13.1%), 네번째 12명(2.9%), 다섯번째 이상 16명(3.8%)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축제 관람회수에 대한 빈도분석



- 거주지역별 관람회수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주도민들은 첫번째 방문인 경우 129명(56.1%), 북제주군민은 두 번째 방문인 경우 28명(29.2%), 타· 시도 및 외국인은 첫번째 방문인 경우 76명(8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7> 거주지역별 관람회수에 대한 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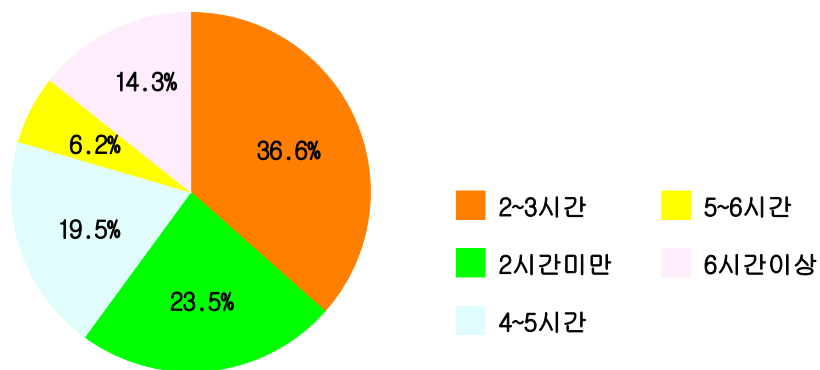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계	통계량
제 주 도	129(56.1)	67(29.1)	27(11.7)	1(0.4)	6(2.6)	230(100)	X ² =78.700 p=0.000
북제주군	26(27.1)	28(29.2)	24(25.0)	9(9.4)	9(9.4)	96(100)	
타 시·도	76(80.0)	12(12.6)	4(4.2)	2(2.1)	1(1.1)	95(100)	

6) 축제장에서의 소비시간

- 축제장에서 소비한 시간에 대해 2~3시간 154명(36.6%), 2시간 미만 99명(23.5%), 4~5시간 82명(19.5%), 6시간 이상 60명(14.3%), 5~6시간 26명(6.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축제장에서 소비한 시간에 대한 빈도분석



- 거주지역별 축제장 안에서 소비한 시간을 보면 제주도민은 2~3시간(43.5%), 북제주군은 6시간 이상(36.6%), 타 시·도 관광객은 2~3시간(38.9%)으로 나타나 주로 축제장안에서 2~3시간을 체재한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8> 거주지별 축제장 소비시간에 대한 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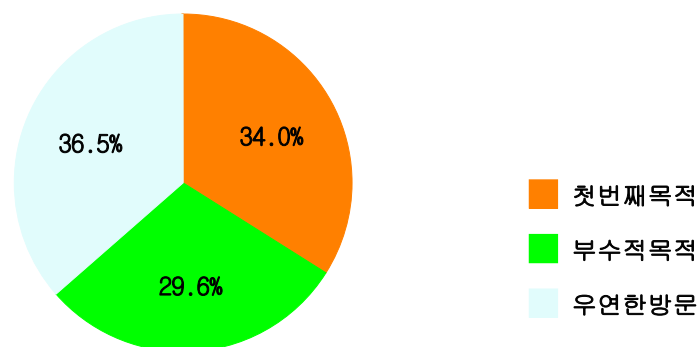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2시간 미만	2~3시간	4~5시간	5~6시간	6시간 이상	계	통계량
제 주 도	61(26.5)	100(43.5)	37(16.1)	10(4.3)	22(9.6)	230(100)	X ² =81.848 p=0.000
북제주군	17(17.7)	17(17.7)	14(14.6)	13(13.5)	35(36.5)	96(100)	
타 시·도	21(22.1)	37(38.9)	31(32.6)	3(3.2)	3(3.2)	95(100)	

7) 축제 참여목적

- 축제 참여목적에 대해서 첫번째 목적 54명(34.0%), 부수적 목적이 47명(29.6%), 우연한 방문이 58명(36.5%)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축제 참여목적에 대한 빈도 분석



- 관광객 대상의 축제참여목적에 대한 분석을 보면 제주도민인 경우는 우연한 방문이 22명(37.5%)으로 가장 많았고, 북제주군민은 부수적 목적(45%), 타 시·도 및 외국인(39.5%) 역시 우연한 방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다만, 타 시·도 및 외국인 경우는 첫 번째 목적이 우연한 방문보다 조금 적은 37%를 나타냄으로써 들불축제 참가가 주된 참여목적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3-9> 거주지별 축제 참여목적 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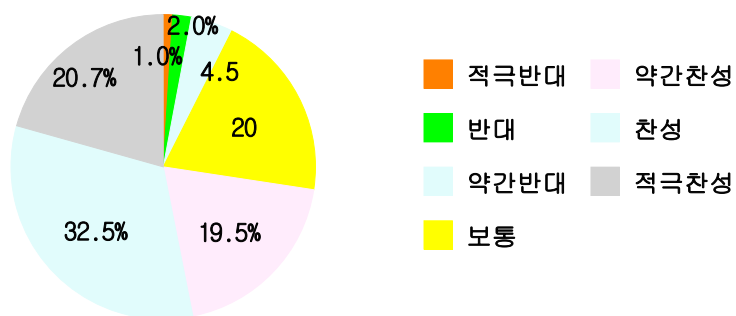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첫번째 목적	부수적 목적	우연한 방문	기타	계	통계량
제 주 도	17(28.8)	20(33.9)	22(37.3)		59(100)	X ² =6.865 p=0.333
북제주군	7(30.5)	9(45.0)	4(20.0)		20(100)	
타 시·도	30(37.0)	18(22.2)	32(39.5)	1(1.2)	81(100)	

8) 축제육성에 대한 동의여부

- 들불축제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동의여부에 대해, 적극 반대 4명(1.0%), 반대 8명(1.98%), 약간 반대 19명(4.5%), 보통 84명(20.0%), 약간 찬성 82명(19.5%), 찬성 137명(32.55%), 적극 찬성 87명 (20.7%)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축제육성에 동의여부 빈도 분석



- 축제육성 동의여부에 대한 인식을 거주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북제주군민(5.50), 제주도민(5.47), 타 시·도 및 외국인(4.87) 순으로 들불축제 육성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고, 세 집단별 의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즉, 타 시·도 및 외국인 방문객의 축제육성 동의 여부가 제주도민이나 북제주군민들에 비해 통계적인 의미를 가진 정도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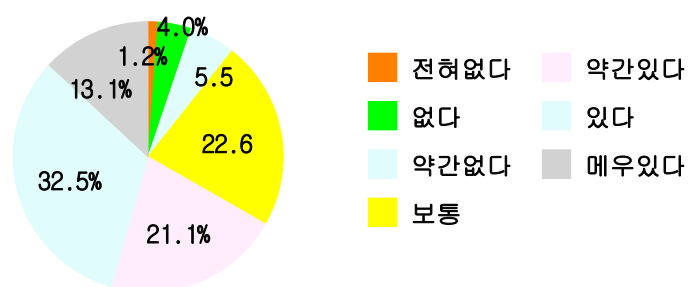
<표 3-10> 거주지별 축제육성의 동의여부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구 분	(1: 적극반대 - 7: 적극찬성 7점척도) 평균값	통계량
제주도	5.47	F=8.475 p=0.000
북제주군	5.50	
타 시·도	4.87	
평 균	5.35	

10) 축제 재방문 여부

- 들불축제의 재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방문의사가 전혀 없다 5명(1.2%), 없다 17명(4.0%), 약간 없다 23명(5.5%), 보통 95명(22.6%), 약간 있다 89명(21.1%), 있다 137명(32.5%), 매우 있다 55명(13.1%)으로 나타났다.

<그림3-9> 축제 재방문에 대한 빈도분석



- 축제 재방문 여부에 대한 인식을 거주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제주도민의 경우 재방문 의사를 묻는 7점 척도 기준으로 5.22 정도로 재방문 여부의사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 북제주군민은 5.38, 타 시·도 및 외국인 참가자는 4.45 정도로 재방문에 찬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1> 거주지별 축제 재방문여부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구 분	(1: 전혀없다 - 7: 매우있다, 7점척도) 평균값	통계량
제주도	5.22	F=14.544 p=0.000
북제주군	5.38	
타 시·도	4.45	
평 균	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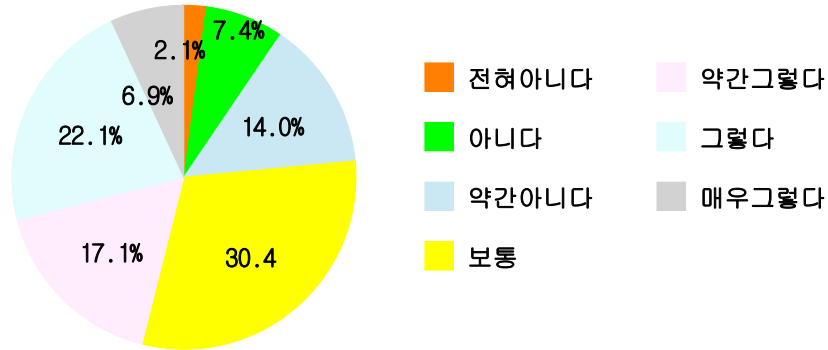
- 이와 같은 결과는 타 시·도 및 외국인 방문객의 재방문 여부에 대한 인식이 제주도민이나 북제주군민에 비해 낮게 형성된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 축제에 대한 만족도 분석

1) 행사장까지의 접근성

- 축제행사장까지 쉽고 편하게 찾아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전혀 아니다' 9명(2.1%), '아니다' 31명(7.4%), '약간 아니다' 59명(14.0%), '보통' 128명(30.4%), '약간 그렇다' 72명(17.1%), '그렇다' 93명(22.1%), '매우 그렇다' 29명(6.9%)으로 나타났다. 질문의 평균값은 4.47로 나타났다.

<그림 3-10> 행사장 접근성에 대한 빈도분석



- 축제 행사장까지의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거주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북제주군민(4.69), 제주도민(4.46), 타 시·도 및 외국인(4.27) 순으로 축제 행사장까지의 접근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고, 세 집단별 의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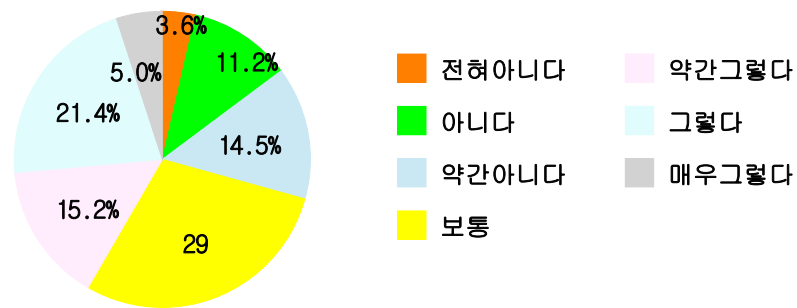
<표 3-12> 축제 행사장까지의 접근성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구 분	(1: 전혀 아니다 - 7: 매우 그렇다, 7점척도) 평균값	통계량
제주도	4.46	F=1.938 p=0.139
북제주군	4.69	
타 시·도	4.27	
평 균	4.47	

2) 사전홍보를 통한 축제 프로그램의 인지여부

- 사전홍보를 통한 축제 프로그램의 인지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전혀 아니다’ 15명(3.6%), ‘아니다’ 47명(11.2%), ‘약간 아니다’ 61명(14.5%), ‘보통’ 122명(29.0%), ‘약간 그렇다’ 64명(15.2%), ‘그렇다’ 90명(21.4%), ‘매우 그렇다’ 21명(5.0%) 등으로 나타났다. 답변의 평균값은 4.25로 나타났다.

<그림 3-11> 사전홍보를 통한 축제 프로그램의 인지여부



- 축제 사전홍보를 통한 프로그램 인지여부를 거주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북제주군민(5.04), 제주도민(4.21), 타 시·도 및 외국인(3.55) 순으로 축제 사전홍보를 통한 프로그램 인식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즉, 북제주군민이나 제주도민에 비해 타 시·도 방문객의 축제사전홍보를 통한 프로그램 인식 정도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낮게 산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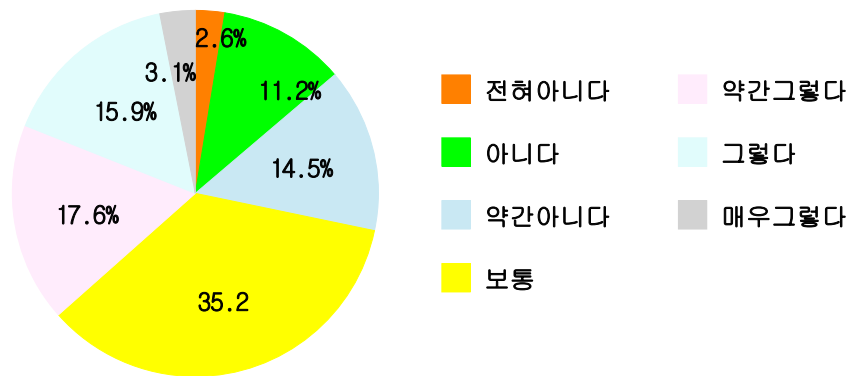
<표 3-13> 축제 사전홍보를 통한 프로그램 인식차이 분석

구 분	(1: 전혀 아니다 - 7: 매우 그렇다, 7점척도) 평균값	통계량
제주도	4.21	F=25.618 p=0.000
북제주군	5.04	
타 시·도	3.55	
평 균	4.25	

3) 행사장내 안내시설의 우수성

- 행사장내 안내시설의 우수성에 대한 설문지 조사에서는 ‘전혀 아니다’ 11명 (2.6%), ‘아니다’ 47명(11.2%), ‘약간 아니다’ 61명(14.5%), ‘보통’ 148명(35.2%), ‘약간 그렇다’ 74명(17.6%), ‘그렇다’ 67명(15.9%), ‘매우 그렇다’ 13명(3.1%)으로 나타났다. 답변의 평균값은 4.14로 나타났다.

<그림 3-12> 행사장내 안내시설 만족도



- 축제행사장 내 안내시설 만족도를 거주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북제주군민(4.79), 제주도민(4.10), 타 시·도 및 외국인(3.57) 순으로 축제 행사안내시설 만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세 집단별 의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즉, 타 시·도 방문객의 축제 행사 안내시설 만족에 대한 인식은 북제주군민이나 제주도민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낮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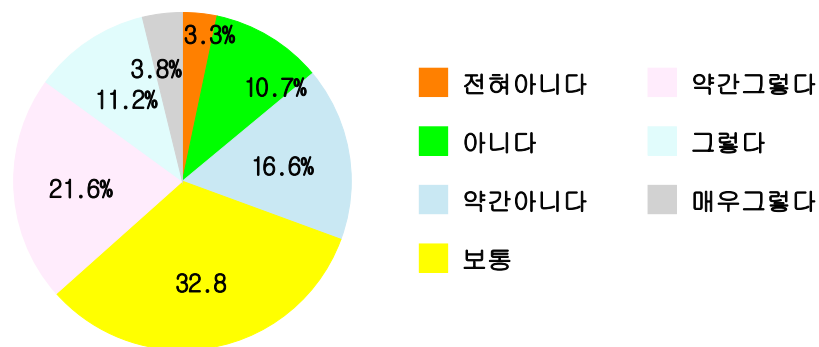
<표 3-14> 축제 행사안내시설 만족 인식차이 분석

구 분	(1: 전혀 아니다 - 7: 매우 그렇다, 7점 척도) 평균값	통계량
제주도	4.10	F=20.737 p=0.000
북제주군	4.79	
타 시·도	3.57	
평 균	4.14	

4) 행사관련 팸플렛 내용의 충실성과 잘 비치되어 있었는지 여부

- 행사관련 팸플렛 내용의 충실성과 행사장에 팸플렛이 잘 비치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지 조사에서는 ‘전혀 아니다’ 14명(3.3%), ‘아니다’ 45명(10.7%), ‘약간 아니다’ 70명(16.6%), ‘보통’ 138명(32.8%), ‘약간 그렇다’ 91명(21.6%), ‘그렇다’ 47명(11.2%), ‘매우 그렇다’ 16명(3.8%)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 행사관련 팸플렛 만족도



- 축제행사 안내 팸플렛에 대한 만족인식을 거주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북제주군민(4.77), 제주도민(3.98), 타 시·도 및 외국인(3.59) 순으로 행사관련 팸플렛에 대한 만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세 집단별 의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즉, 축제행사 안내 팸플렛에 대한 만족도는 북제주군 참가자를 제외하고는 7점 척도의 중간값인 4.0을 상회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내 팸플렛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타 시·도 방문객의 팸플렛 만족 정도는 통계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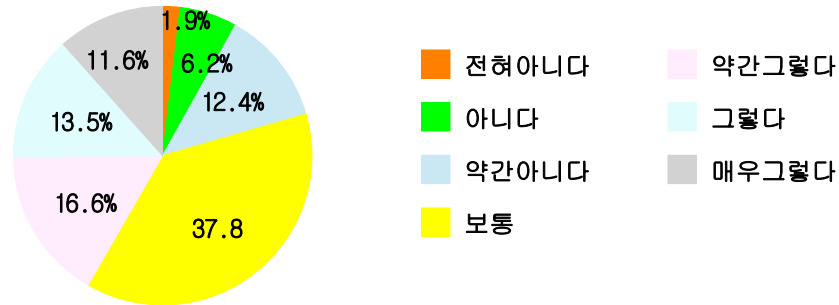
<표 3-15> 축제 행사안내 팸플렛 만족 인식차이 분석

구 분	(1: 전혀 아니다 - 7: 매우 그렇다, 7점척도) 평균값	통계량
제주도	3.98	F=20.396 p=0.000
북제주군	4.77	
타 시·도	3.59	
평 균	4.07	

5) 행사장내 안내요원들의 서비스

- 행사장내 안내요원들의 서비스에 대한 설문지 조사에서는 ‘전혀 아니다’ 8명(1.9%), ‘아니다’ 26명(6.2%), ‘약간 아니다’ 52명(12.4%), ‘보통’ 159명(37.8%), ‘약간 그렇다’ 70명(16.6%), ‘그렇다’ 57명(13.5%), ‘매우 그렇다’ 49명(11.6%)으로 나타났다. 질문의 평균값은 4.48로 나타났다.
- 축제 안내요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거주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북제주군민(5.01), 제주도민(4.43), 타 시·도 및 외국인(4.07) 순으로 안내요원들의 서비스를 만족하고 있고, 세 집단별 의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이 문항 역시, 타 시·도 방문객이 통계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축제 안내요원 서비스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4> 안내요원들의 서비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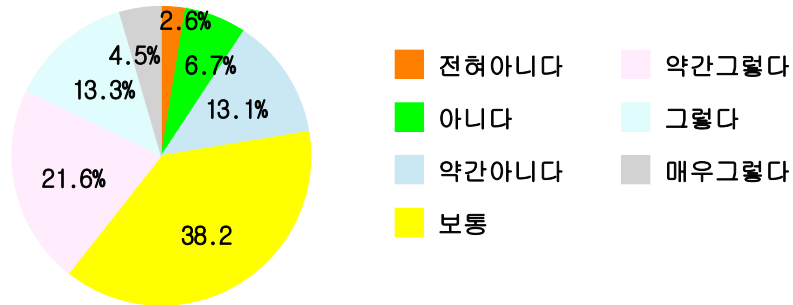
<표 3-16> 축제 안내요원들의 서비스 만족 인식차이 분석

구 분	(1: 전혀 아니다 - 7: 매우 그렇다, 7점척도) 평균값	통계량
제주도	4.43	F=10.947 p=0.000
북제주군	5.01	
타 시·도	4.07	
평 균	4.48	

6) 행사내용의 재미

- 행사내용의 재미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전혀 아니다’ 11명(2.6%), ‘아니다’ 28명(8.7%), ‘약간 아니다’ 55명(13.1%), ‘보통’ 161명(38.2%), ‘약간 그렇다’ 91명(21.6%), ‘그렇다’ 56명(13.3%), ‘매우 그렇다’ 19명(4.5%)으로 나타났다. 답변의 평균값은 4.28로 나타났다.
- 축제 행사내용의 재미 정도를 거주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북제주군민(5.01), 제주도민(4.43), 타 시·도 및 외국인(4.07) 순으로 행사 내용의 재미정도에 만족하고 있고, 세 집단별 의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이 문항 역시, 타 시·도 방문객이 다른 집단에 비해 축제 행사 내용의 재미 정도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5> 행사내용의 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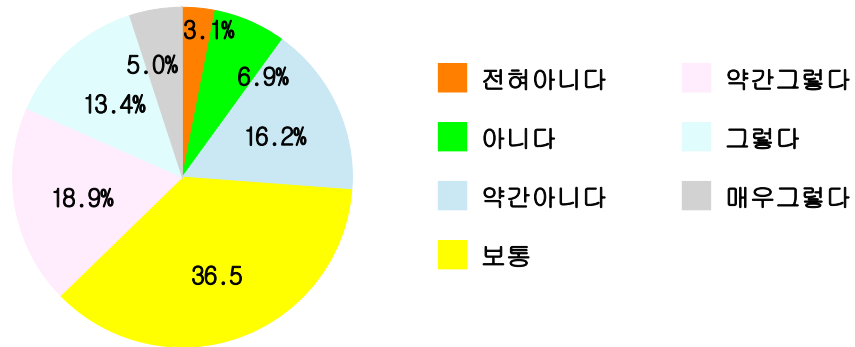
<표 3-17> 축제 행사내용 재미 인식차이 분석

구 분	(1: 전혀 아니다 - 7: 매우 그렇다, 7점척도) 평균값	통계량
제주도	4.30	F=7.990 p=0.000
북제주군	4.61	
타 시·도	3.87	
평 균	4.28	

7) 행사내용의 다양성

- 행사내용의 다양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전혀 아니다’ 13명(3.1%), ‘아니다’ 29명(6.95%), ‘약간 아니다’ 68명(16.2%), ‘보통’ 153명(36.5%), ‘약간 그렇다’ 79명(18.9%), ‘그렇다’ 56명(13.4%), 매우 그렇다’ 21명(5.0%)으로 나타났다. 답변의 평균값은 4.21로 나타났다.
- 축제 행사내용의 다양성을 거주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북제주군민(4.74), 제주도민(4.17), 타 시·도 및 외국인(3.79) 순으로 행사내용의 다양성에 대해 만족하고 있고, 세 집단별 의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3-16> 행사내용의 다양성 만족도



- 타· 시도 방문객은 7점척도의 중간값 4.0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다른 집단 보다 축제 행사내용이 다양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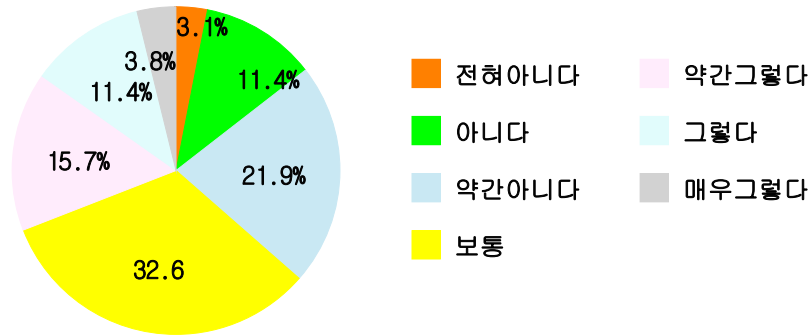
<표 3-18> 축제 행사내용 다양성 인식차이 분석

구 분	(1: 전혀 아니다 - 7: 매우 그렇다, 7점척도) 평균값	통계량
제주도	4.17	F=12.581 p=0.000
북제주군	4.74	
타 시·도	3.79	
평 균	4.21	

8) 직접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 직접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을 묻는 설문 조사에서는 ‘전혀 아니다’ 13명 (3.1%), ‘아니다’ 48명(11.4%), ‘약간 아니다’ 92명(21.9%), ‘보통’ 137명(32.6%), ‘약간 그렇다’ 66명(15.7%), ‘그렇다’ 48명(11.4%), ‘매우 그렇다’ 16명(3.8%)으로 나타났다. 답변의 평균값은 3.96으로 나타났다.

<그림 3-17> 직접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빈도분석



- 축제의 직접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여부를 거주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북제주군민(4.40), 제주도민(3.88), 타 시·도 및 외국인(3.70) 순으로 직접참여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고 있고, 세 집단별 의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제주도민과 타 시·도 방문객이 7점척도의 중간값 4.0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다른 집단 보다 축제 행사내용이 다양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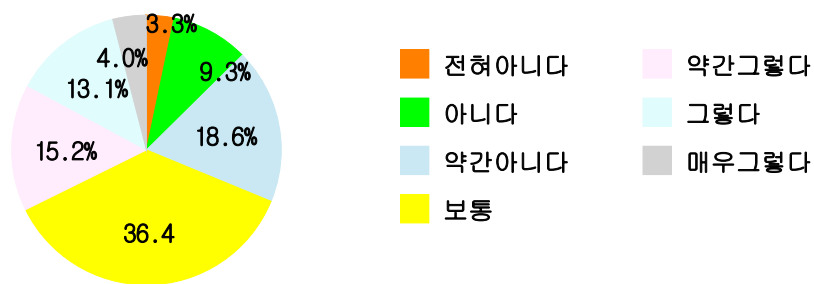
<표 3-19> 축제 직접참여 프로그램 인식차이 분석

구 분	(1: 전혀 아니다 - 7: 매우 그렇다, 7점척도) 평균값	통계량
제주도	3.88	F=12.932 p=0.001
북제주군	4.40	
타 시·도	3.70	
평 균	3.96	

9)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인지여부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에 대한 인지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전혀 아니다’ 14명(3.3%), ‘아니다’ 39명(9.3%), ‘약간 아니다’ 78명(18.6%), ‘보통’ 153명(36.4%), ‘약간 그렇다’ 64명(15.2%), ‘그렇다’ 55명(13.1%), ‘매우 그렇다’ 17명(4.0%)으로 나타났다. 답변의 평균값은 4.06으로 나타났다.

<그림 3-18>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에 대한 인지여부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인식에 대한 만족여부를 거주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북제주군민(4.41), 제주도민(4.03), 타 시·도 및 외국인(3.79) 순으로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 타 시·도 방문객은 7점척도의 중간값 4.0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어, 다른 집단보다 축제를 통해 지역문화를 인식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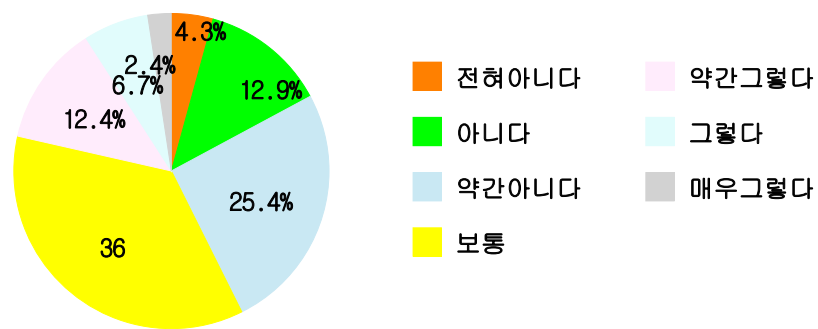
<표 3-20>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인식 차이분석

구 분	(1: 전혀 아니다 - 7: 매우 그렇다, 7점척도) 평균값	통계량
제주도	4.03	F=5.005 p=0.007
북제주군	4.41	
타 시·도	3.79	
평 균	4.06	

10) 기념품 종류의 다양성

- 기념품 종류의 다양성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는 ‘전혀 아니다’ 18명(4.3%), ‘아니다’ 54명(12.9%), ‘약간 아니다’ 107명(25.5%), ‘보통’ 151명(36.0%), ‘약간 그렇다’ 52명(12.4%), ‘그렇다’ 28명(6.7%), ‘매우 그렇다’ 10명(2.4%)으로 나타났다. 답변의 평균값은 3.69로 나타났다.

<그림 3-19> 기념품 종류의 다양성 만족도



- 기념품 종류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여부를 거주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북제주군민(4.02), 제주도민(3.64), 타 시·도 및 외국인(3.47)으로 북제주군 참가자가 7점 척도의 중간값인 4.0 정도 수준에서, 나머지 지역 참가자가 4.0 이하 수준에서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 이들 집단의 기념품 종류 만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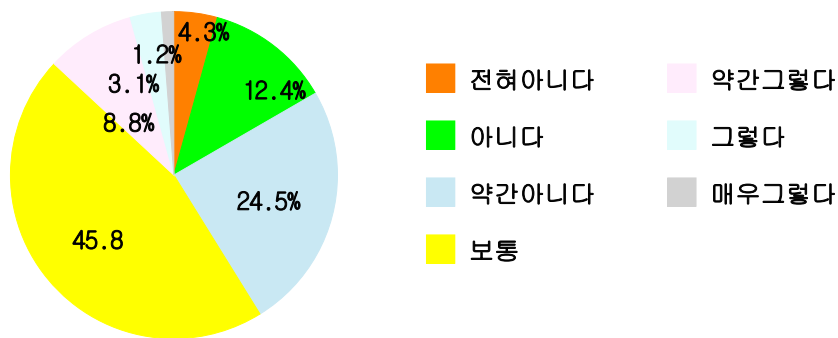
<표 3-21> 축제 기념품 종류의 다양성 만족 차이분석

구 분	(1: 전혀 아니다 - 7: 매우 그렇다, 7점 척도) 평균값	통계량
제주도	3.64	F=5.005 p=0.007
북제주군	4.02	
타 시·도	3.47	
평 균	3.69	

11) 기념품의 품질

- 기념품의 품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전혀 아니다' 18명(4.3%), '아니다' 52명(12.4%), '약간 아니다' 103명(24.5%), '보통' 193명(45.8%), '약간 그렇다' 37명(8.8%), '그렇다' 13명(3.1%), '매우 그렇다' 5명(1.2%)으로 나타났다. 답변에 대한 평균값은 3.57로 나타났다.

<그림 3-20> 기념품 품질 만족도



- 기념품 품질 만족에 대한 만족여부를 거주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북제주군민(3.84), 제주도민(3.57), 타 시·도 및 외국인(3.27)으로, 전 지역 참가자가 7점척도의 중간값인 4.0 이하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 이들 집단의 기념품 종류 만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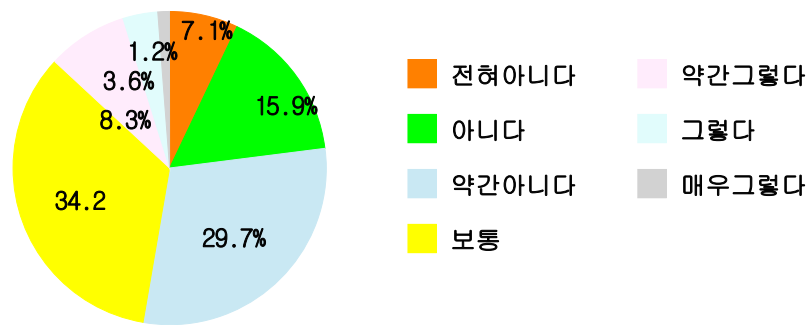
<표 3-22> 축제 기념품 품질 만족 차이분석

구 분	(1: 전혀 아니다 - 7: 매우 그렇다, 7점척도) 평균값	통계량
제주도	3.57	F=6.339 p=0.002
북제주군	3.84	
타 시·도	3.27	
평 균	3.57	

12) 기념품 가격의 적정성

- 기념품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는 ‘전혀 아니다’ 30명(7.1%), ‘아니다’ 67명(15.9%), ‘약간 아니다’ 125명(29.7%), ‘보통’ 144명(34.2%), ‘약간 그렇다’ 35명(8.3%), ‘그렇다’ 15명(3.6%), ‘매우 그렇다’ 5명(1.2%)으로 나타났다. 답변의 평균값은 3.36으로 나타났다.

<그림 3-21> 기념품 가격의 적정성 인식정도



- 기념품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여부를 거주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북제주군민 (3.60), 제주도민(3.39), 타 시·도 및 외국인(3.05)으로, 전 참가자가 7점척도의 중간 값인 4.0 이하의 낮은 수준에서 축제 기념품 가격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 세 집단의 기념품 가격에 대한 만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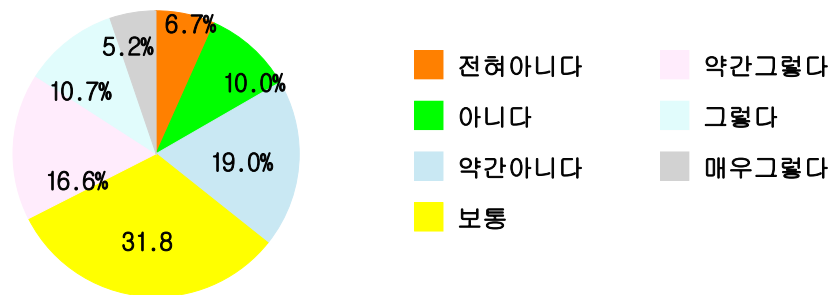
<표 3-23> 축제 기념품 가격 적정성 만족 차이분석

구 분	(1: 전혀 아니다 - 7: 매우 그렇다, 7점척도) 평균값	통계량
제주도	3.39	F=5.041 p=0.007
북제주군	3.60	
타 시·도	3.05	
평 균	3.36	

13) 음식 종류의 다양성

- 음식종류의 다양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전혀 아니다' 28명(6.7%), '아니다' 42명(10.0%), '약간 아니다' 80명(19.0%), '보통' 134명(31.8%), '약간 그렇다' 70명(16.6%), '그렇다' 45명(10.7%), '매우 그렇다' 22명(5.2%)으로 나타났다. 답변의 평균값은 3.95로 나타났다.

<그림 3-22> 음식 종류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 축제 음식 종류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여부를 거주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북제주군민(4.22), 제주도민(4.03), 타 시·도 및 외국인(3.46) 순으로 축제음식 종류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 이들 집단의 음식 종류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타 시·도 방문객은 7점척도의 중간값 4.0 이하로 낮게 인식하고 있어, 다른 집단보다 축제 음식 종류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정도가 낮게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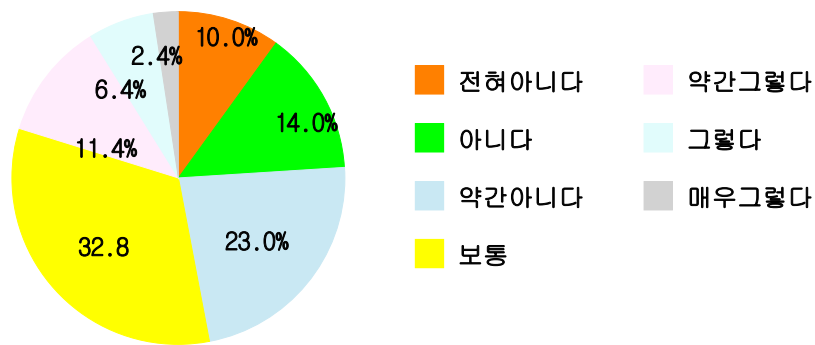
<표 3-24> 축제 음식 종류 다양성 만족 차이분석

구 분	(1: 전혀 아니다 - 7: 매우 그렇다, 7점척도) 평균값	통계량
제주도	4.03	F=7.098 p=0.001
북제주군	4.22	
타 시·도	3.46	
평 균	3.95	

14) 음식 가격과 질

- 음식가격과 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전혀 아니다' 42명(10.0%), '아니다' 59명(14.0%), '약간 아니다' 97명(23.0%), '보통' 138명(32.8%), '약간 그렇다' 48명(11.4%), '그렇다' 27명(6.4%), '매우 그렇다' 10명(2.4%)으로 나타났다. 답변의 평균값은 3.50으로 나타났다.

<그림 3-23> 음식 가격과 질에 대한 빈도분석



- 축제 음식 가격과 질에 대한 만족여부를 거주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북제주군민(3.53), 제주도민(3.60), 타 시·도 및 외국인(3.25) 순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세 집단의 축제 음식 가격과 질에 대한 만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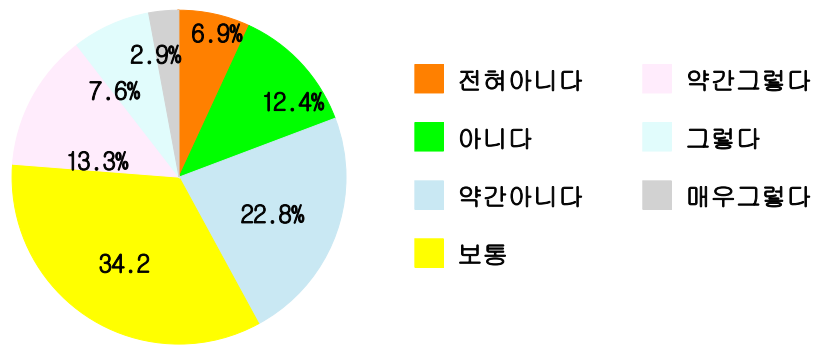
<표 3-25> 축제 음식 가격과 질 만족 차이분석

구 분	(1: 전혀 아니다 - 7: 매우 그렇다, 7점척도) 평균값	통계량
제주도	3.60	F=1.980 p=0.139
북제주군	3.53	
타 시·도	3.25	
평 균	3.50	

15) 축제와 음식의 조화

- 축제와 음식의 조화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전혀 아니다' 29명(6.9%), '아니다' 52명(12.4%), '약간 아니다' 96명(22.8%), '보통' 144명(34.2%), '약간 그렇다' 56명(13.3%), '그렇다' 32명(7.6%), '매우 그렇다' 12명(2.9%)으로 나타났다. 답변의 평균값은 3.69로 나타났다.

<그림 3-24> 축제와 음식의 조화에 대한 인식



- 축제와 음식의 조화에 대한 인식을 거주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북제주군민(3.90), 제주도민(3.74), 타 시·도 및 외국인(3.36) 순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세 집단의 축제와 음식과의 조화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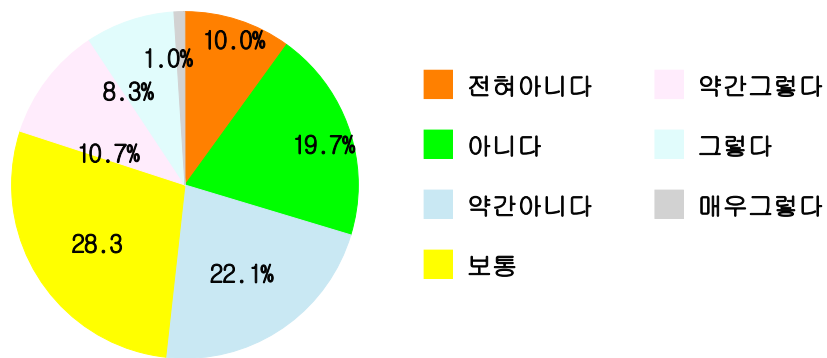
<표 3-26> 축제와 음식의 조화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분석

구 분	(1: 전혀 아니다 - 7: 매우 그렇다, 7점척도) 평균값	통계량
제주도	3.74	F=3.939 p=0.020
북제주군	3.90	
타 시·도	3.36	
평 균	3.69	

16) 휴식공간의 효율적인 배치

- 휴식공간의 효율적인 배치에 관한 조사에서는 ‘전혀 아니다’ 42명(10.0%), ‘아니다’ 83명(19.7%), ‘약간 아니다’ 93명(22.1%), ‘보통’ 119명(28.3%), ‘약간 그렇다’ 45명(10.7%), ‘그렇다’ 35명(8.3%), ‘매우 그렇다’ 4명(1.0%)으로 나타났다. 답변의 평균값은 3.39로 나타났다.

<그림 3-25> 휴식공간의 효율적인 배치에 대한 인식



- 휴식공간 배치의 효율성에 대한 만족정도를 거주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북제주군민(3.44), 제주도민(3.40), 타 시·도 및 외국인(3.32) 순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이들 세 집단의 휴식공간 배치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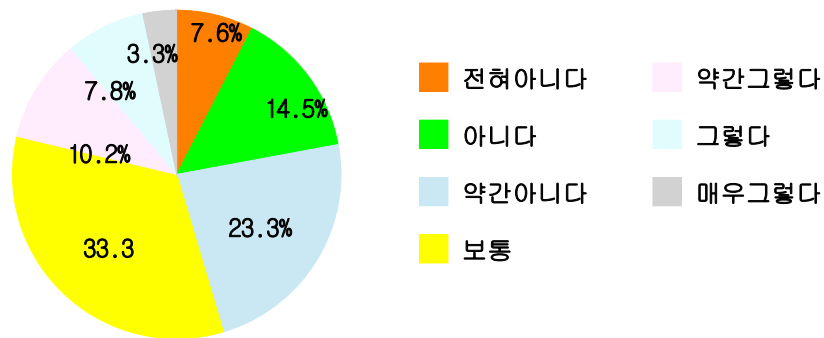
<표 3-27> 휴식공간 배치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 차이분석

구 분	(1: 전혀 아니다 - 7: 매우 그렇다, 7점척도) 평균값	통계량
제주도	3.40	F=0.180 p=0.836
북제주군	3.44	
타 시·도	3.32	
평 균	3.39	

17) 화장실 청결과 위생

- 화장실의 청결과 위생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전혀 아니다’ 32명(7.6%), ‘아니다’ 61명(14.5%), ‘약간 아니다’ 98명(23.3%), ‘보통’ 140명(33.3%), ‘약간 그렇다’ 43명(10.2%), ‘그렇다’ 33명(7.8%), ‘매우 그렇다’ 14명(3.3%)으로 나타났다. 답변의 평균값은 3.61로 나타났다.

<그림 3-26> 화장실 청결에 대한 인식



- 화장실 청결과 위생에 대한 만족정도를 거주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북제주군민(3.80), 제주도민(3.60), 타 시·도 및 외국인(3.42) 순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이들 세 집단의 화장실 청결과 위생에 대한 만족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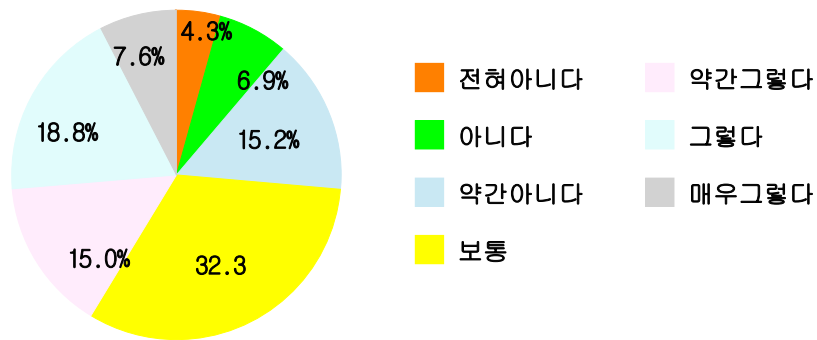
<표 3-28> 화장실 청결 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분석

구 분	(1: 전혀 아니다 - 7: 매우 그렇다, 7점척도) 평균값	통계량
제주도	3.60	F=1.688 p=0.186
북제주군	3.80	
타 시·도	3.42	
평 균	3.61	

18) 주차장 시설

- 주차장 시설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전혀 아니다' 18명(4.35%), '아니다' 29명(6.9%), '약간 아니다' 64명(15.2%), '보통' 136명(32.3%), '약간 그렇다' 63명(15.0%), '그렇다' 79명(18.8%), '매우 그렇다' 32명(7.6%)으로 나타났다. 답변의 평균값은 4.33으로 나타났다.

<그림 3-27> 주차장 시설에 대한 인식



- 주차장 시설에 대한 만족정도를 거주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북제주군민(4.46), 제주도민(4.34), 타 시·도 및 외국인(4.20) 순으로 주차장 시설에 대한 만족을 나타냈고, 이들 세 집단의 주차장 시설에 대한 만족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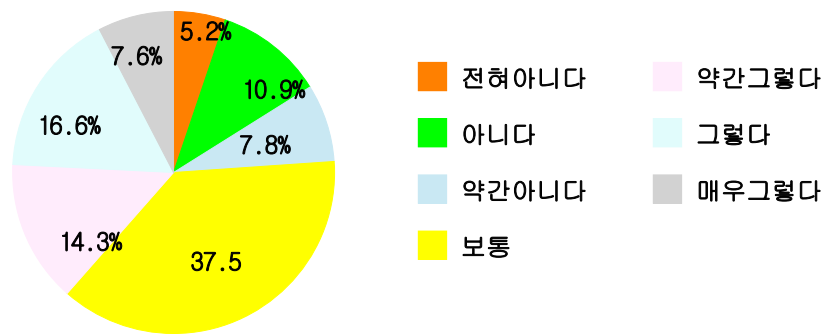
<표 3-29> 주차장 시설에 대한 인식 차이분석

구 분	(1: 전혀 아니다 - 7: 매우 그렇다, 7점 척도) 평균값	통계량
제주도	4.34	F=0.697 p=0.499
북제주군	4.46	
타 시·도	4.20	
평 균	4.33	

19) 주변관광지 방문계획

- 축제관람 후 주변의 유명한 관광지의 방문계획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는 ‘전혀 아니다’ 22명(5.2%), ‘아니다’ 46명(10.9%), ‘약간 아니다’ 33명(7.8%), ‘보통’ 158명(37.5%), ‘약간 그렇다’ 60명(14.3%), ‘그렇다’ 70명(16.6%), ‘매우 그렇다’ 32명(7.6%)으로 나타났다. 답변의 평균값은 4.25로 나타났다.

<그림 3-28> 주변관광지 방문계획에 관한 빈도분석



- 축제관람 후 주변관광지 방문계획에 대한 인식 차이를 거주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타 시·도 및 외국인(5.01), 제주도민(4.05), 북제주군민(3.98) 순으로 주변 관광지 방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고, 이들 세 집단의 주변관광지 방문 의견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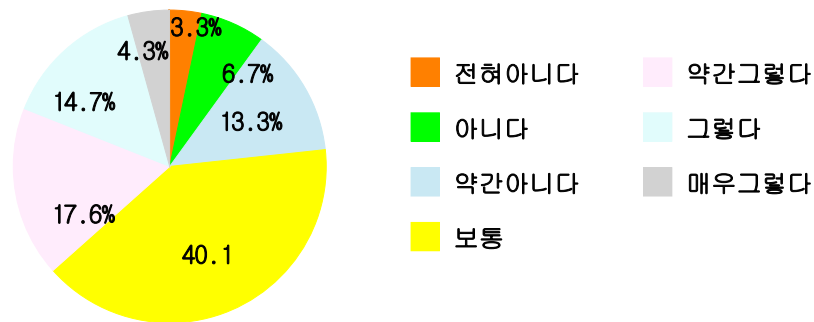
<표 3-30> 축제관람 후 주변관광지 방문계획에 대한 인식 차이분석

구분	(1: 전혀 아니다 - 7: 매우 그렇다, 7점척도) 평균값	통계량
제주도	4.05	F=15.782 p=0.000
북제주군	3.98	
타 시·도	5.01	
평균	4.25	

20) 축제의 전반적인 만족도

- 축제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관한 조사에서는 '전혀 아니다' 14명(3.3%), '아니다' 28명(6.7%), '약간 아니다' 56명(13.3%), '보통' 169명(40.1%), '약간 그렇다' 74명(17.6%), '그렇다' 62명(14.7%), '매우 그렇다' 18명(4.3%)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평균값은 4.23으로 나타났다.

<그림 3-29>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차이를 거주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북제주군민(4.61), 제주도민(4.14), 타 시·도 및 외국인(4.06) 순으로 2004 제주들불축제에 대한 만족을 나타냈고, 전체 참가자의 전반적인 축제 만족정도는 4.23으로 7점척도의 중간값인 4.0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형성되었다.

<표 3-31> 축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인식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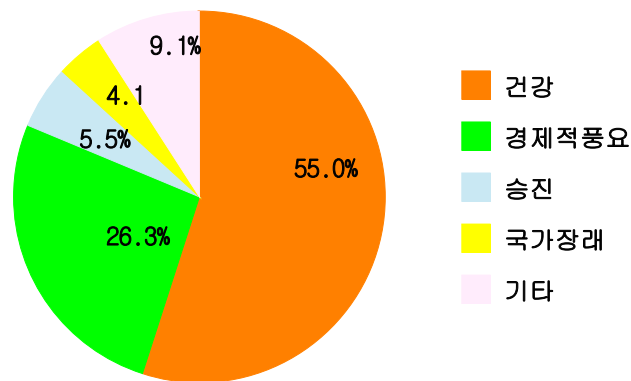
구 분	(1: 전혀 아니다 - 7: 매우 그렇다, 7점척도) 평균값	통계량
제주도	4.14	F=5.266 p=0.006
북제주군	4.61	
타 시·도	4.06	
평 균	4.23	

- 그리고 북제주군 참가자들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타 시·도 참가자들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면서, 세 집단의 축제 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1) 기원하거나 할 소망

- 축제에서의 소망을 비는 사항을 분석한 결과 '건강' 231명(54.9%), '경제적 풍요' 110명(26.3%), '승진' 23명(5.5%), '국가 장래' 17명(4.1%), '기타 의견' 38명(9.1%)으로 나타났다.

<그림 3-30> 축제에서의 소망



IV. 관람객 수요증가 및 소비·투자지출액 추정

1. 관람객 수요 및 소비지출액 추정

가. 전체 관람객 및 관광객 수 산정

1) 전체 관람객 수

- 들불축제는 개방형 축제로서 관람객 수를 산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정확한 전체 관람객 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산정방법을 활용하였고, 도외 관광객을 구분해 내기 위해서 세 가지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 먼저 전체 관람객 수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축제기간 동안 축제장을 찾은 전체 자동차 수를 산정하고, 자동차 유형별로 평균 탑승인원 수를 곱하는 방식과 축제장 입구에서 계수기를 가지고 전체 관람객 수를 집계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였다.
- 그 결과 다음의 <표 4-1>과 같이 전체 관람객 수는 자동차 대수에 평균 탑승인원을 곱하는 산정방식으로는 약 20만 6천여명이, 계수기에 의한 집계로는 약 20만 5천여명이 들불축제에 참여한 것으로 산정되었다.

<표 4-1> 들불축제 전체 관람객 수

구분	자동차 대수에 의한 산정	계수기에 의한 산정
전체 관람객	206,500명	205,400명
외국인 관람객	1,284명	1,268명

- 이상의 두 가지 산정방식 가운데 자동차 대수에 의한 관람객 수 산정은 차종별로 일정한 인원을 적용하는 데는 오차의 범위가 커질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였고,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계수기에 의해 집계된 205,400명을 최종 관람객 수로 산정하였다. 단 이 결과도 다음과 같은 변수들로 인해 다소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
- 축제장 입구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집계한 것이므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을 구별해 내기가 쉽지 않아 다소 중복계수의 가능성이 있다.
- 축제와 관련된 사람, 즉 행사 진행요원이나 공연단, 상가운영자 등 순수 관람객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도 계수될 수 있다.

2) 관람객 수

- 전체 관람객 가운데 제주도민이 아닌 관광객을 구별하여 산정하기 위해서 다음의 방법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 먼저 자동차 가운데 관광버스와 렌트카를 따로 산정하여 평균 탑승인원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 두번째는 설문조사 결과 도출된 전체 관람객 수 대비 관광객 비율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난 2002, 2003년 축제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방법을 활용하였다.
- 이상의 방법을 활용한 결과 관광객 수는 다음의 <표4-2>와 같이 산정되었다. 단 외국인관광객은 그 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계수기에 의해 집계된 1,268명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표 4-2> 들불축제 참가 관광객 수

전체 관람객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전체 관광객 (관람객 대비 관광객 비율)
205,400명	24,002명	1,268명	25,270명 (12.3%)

2. 관광소비지출액 추정

가. 내국인관광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 산출

- 제주발전연구원의 『제주도 관광통계 작성에 관한 연구』(2000.2) 보고서에 따르면 왕복항공요금을 제외한 국내 여행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은 2박 3일을 기준으로 여행형태별로 달리 산출하여 제시되고 있다.

<표 4-3>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의 여행형태별 지출액(1999년 기준)

(단위: 원/명)

구 분	숙박비	식사비	교통비	쇼핑비	레저 스포츠비	오락 유흥비	기타 경비	1인당 지출액
일반단체	42,000	58,200	59,400	62,933	104,600	60,533	67,333	454,999
수학여행	39,400	15,200	20,000	16,400	4,200	6,000	4,000	105,200
신혼여행	169,929	93,000	98,429	93,629	17,571	14,214	34,000	520,772
가족여행	80,706	63,795	58,795	41,635	23,617	5,449	23,583	297,580
개별여행	48,490	48,923	45,090	24,173	9,327	50,356	27,385	253,744

- <표 4-3>에 의하면 일반여행객의 경우 1인당 소비액은 261,175원, 수학여행객은 137,544원, 신혼여행객은 580,204원, 가족여행객은 293,418원, 개별여행객은 1인당 소비액이 235,007원이었다.
- 들불축제에 참가한 관광객의 여행형태별로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990~2001년 동안의 여행형태별 내국인 관광객 점유율인 일반단체 19.43%, 수학여행 8.28%, 신혼여행 11.96%, 가족여행을 포함한 개별 기타 60.33%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국내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을 계산했는데, 1999년 기준(2.5일 체제기준) 평균 290,959원(2002년 기준 312,781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여행형태별 내국인관광객 점유율(1995~2001년)

(단위 : 명, %)

구 분	일반단체	비율	수학여행	비율	신혼여행	비율	개별기타	비율	합 계	비율
1995	771,873	20.56	352,056	9.38	381,658	10.16	2,249,373	59.90	3,754,960	100
1996	806,693	20.50	443,494	11.27	347,588	8.83	2,336,927	59.39	3,934,702	100
1997	807,313	19.32	507,248	12.14	355,944	8.52	2,508,284	60.02	4,178,789	100
1998	493,254	16.08	128,533	4.19	424,038	13.82	2,021,590	65.91	3,067,415	100
1999	584,116	17.08	211,259	6.18	316,506	9.25	2,307,990	67.49	3,419,871	100
2000	627,033	16.40	311,795	8.16	240,272	6.29	2,643,409	69.15	3,822,509	100
2001	698,123	17.86	326,370	8.35	183,480	4.69	2,699,551	69.10	3,907,524	100
평균		19.43		8.28		11.96		60.33		100

자료 : 제주도관광협회, 내부자료.

<표 4-5> 내국인관광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 추정

여행 형태	소비액(원)	'90-'01평균 여행형태별 점유율(%)
일반 단체	261,175	19.43
수학 여행	137,544	8.28
신혼 여행	580,204	11.96
개별 기타	264,213	60.33
합 계	1,243,136	100.0
국내관광객 1인당 평균소비액(2.5일기준)	1999년 기준	290,959(원)
	2003년 기준	323,102(원)*

* 2003년 기준 평균소비액임. 추정방법은 1999년 대비 2002년의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율 3.3%를 감안해 계산된 것임.

자료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관광통계 작성에 관한 연구』, 2000.2.

나. 외국인관광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 산출

- 외국인관광객의 경우는 일본인과 중국계, 영어권으로 나누어서 조사되었다.

<표 4-6> 제주도 외국인관광객의 세목별 지출액(1999년 기준)

(단위: 원/명)

구 분	숙박비	식사비	교통비	쇼핑비	레저 스포츠비	오락 유흥비	기타 경비	1인당 지출액
일본계	353,061	348,824	120,901	729,729	384,035	861,894	282,282	3,080,726
중국계	174,939	105,869	80,006	248,841	9,014	76,199	82,587	777,455
영어권	191,006	80,070	84,710	42,170	18,766	23,580	17,040	457,342

자료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관광통계 작성에 관한 연구』, 2000.2.

<표 4-7> 국가 권역별 외국인관광객 점유율(1995~2001년)

(단위 : 명, %)

구 분	일본권	비율	중국권	비율	영어권	비율	합계	비율
1995	172,993	71.5	57,488	23.8	11,403	4.7	241,884	100
1996	150,139	71.7	49,572	23.7	9,542	4.6	209,253	100
1997	137,040	74.3	37,715	20.5	9,648	5.2	184,403	100
1998	136,272	60.9	73,793	33.0	13,636	6.1	223,701	100
1999	141,267	57.2	89,036	36.1	16,662	6.7	246,965	100
2000	162,095	56.2	98,017	34.0	28,471	9.9	288,583	100
2001	158,026	54.5	94,394	32.5	37,630	13.0	290,050	100
합계	1,057,832	63.8	500,015	29.1	126,992	7.1	1,684,839	100

자료 : 제주도관광협회, 내부자료.

- <표 4-6>에 의하면 2박 3일을 기준으로 일본인 관광객이 제주에서 소비한 비용은 1인당 2,165,561원, 중국계 관광객은 1인당 473,007원, 그리고 영어권 관광객의 경우는 440,683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8> 외국인관광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 추정

구 분		소비액(원)	'95-'02평균 국가권역별점유율(%)
외국인 소비액	일본계(교포,일본)	2,165,561	63.8
	중국계(홍콩,대만,중국,싱가폴)	473,007	29.1
	영어권(미국,영국,독일,러시아등)	440,683	7.1
계			100.0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소비액(2.5일기준)		1999년기준	1,562,636(원)
		2003년기준	1,735,268(원)*

주) 2003년 기준 평균소비액임. 추정방법은 1999년 대비 2002년의 제주지역 소비자물가상승율 3.3%를 감안해 계산된 것임.

자료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관광통계 작성에 관한 연구』, 2000.2.

- 본 연구에서는 축제에 참가한 관광객을 국가별로 추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1995~2001년 동안(7년간)의 국가 권역별 점유율인 일본권 63.8%, 중국권 29.1%, 영어권 7.1%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외국인 1인당 평균 소비액을 계산했다. 1999년 기준(2.5일 체재기준) 평균 1,562,636원(2003년 기준 1,735,268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광객의 산업연관표 분류상 지출 비율을 구하기 위해 1999년도 기준으로 관광객 세분시장별 총지출액과 비율을 산정하고(<표 4-9>), 이러한 결과를 『제주지역의 산업연관모형 개발』 1)에서의 38개 산업부문의 지역산업연관모형에 대입하기 위해 <표 4-10>와 같이 관광객 항목별 지출비율을 재추계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지출비율에 이미 앞에서 구한 내·외국인의 1인당 평균지출액을 곱하여 부문별 지출액을 계산했다.

1) 고성보·김태보·이돈재, 『제주지역의 산업연관모형 개발』, 제주발전연구원, 1999.

<표 4-9> 제주지역산업연관모형 적용을 위한 관광객 세분시장별 지출액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사회 및 기타서비스	계	관광객수	
내국인	일반단체	36,752.9	58,516.8	34,689.6	135,760.1	265,719.4	584,000
	수학여행	3,460.4	11,520.6	4,220.0	2,996.2	22197.2	211,000
	신혼여행	29,680.4	83,348.5	31,202.0	20,853.8	165,084.7	317,000
	가족여행	69,905.2	242,617.2	98,716.8	88,397.7	499,636.8	1,679,000
	개별여행	15,204.8	61,272.8	28,361.6	54,765.8	159,605.0	629,000
	소계	155,003.0	457,275.9	197,190	302,773.6	1,112,243.1	3,420,000
외국인	일본계	103,086.6	99,153.2	17,079.3	215,885.8	435,204.9	141,267
	중국계	19,997.6	22,566.6	6,429.5	13,484.9	62,478.6	80,363
	영어권	374.9	2,410.1	753.2	528.0	4,066.2	8,891
	소계	123,459.1	124,129.9	24,262	229,898.7	501,749.7	230,521
총계	278,462.8	581,405.7	221,452.0	532,672.3	1,613,992.9	3,650,521	

주) 도소매=쇼핑비, 음식 및 숙박=숙박비+식사비, 운수 및 보관=교통비,

사회 및 기타 서비스=레저스포츠+오락·유흥비+기타경비로 산출되었음.

자료 : 신동일, "2003정월대보름 들불축제 평가보고서", 2003.3. p.38 재인용.

<표 4-10> 관광객의 산업연관표 분류상 지출비율(%)

구 분	도소매	음식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사회 및 기타서비스	계
내국인	13.9	41.1	17.7	27.3	100.0
외국인	24.6	24.7	4.8	45.9	100.0
계	17.3	36.0	13.7	33.0	100.0

주) 도소매=쇼핑비, 음식 및 숙박=숙박비+식사비, 운수 및 보관=교통비,

사회 및 기타 서비스=레저스포츠+오락·유흥비+기타경비로 산출되었음.

<표 4-11> 관광객 1인당 산업연관표 부문별 지출액(2003년)

(단위 : 원/인)

구 분	도소매	음식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사회 및 기타서비스	계
내국인	44,911	132,794	57,190	88,207	323,102
외국인	426,876	428,611	83,293	796,488	1,735,268

다. 축제참가 도민의 평균 소비지출액 산출

- 축제 참가자들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산출하기 위해 2004정월대보름 들불축제와 관련해 소비액을 설문조사한 결과 관광객은 44,703원, 제주도민은 17,484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2> 축제 관련 소요경비 추정(2003년)

(단위 : 원)

구 분	관광객	제주도민	전 체
평 균	44,703	17,484	26,511

- 그리고 경비지출 대상을 지역산업연관모형의 38개부문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현지교통비는 운수 및 보관부문으로, 식음료 및 숙박비는 음식점 및 숙박부문으로, 쇼핑비는 도소매업부문으로, 유흥비 및 기타는 사회 및 기타서비스부문으로 각각 조정하였다.
- 축제 관련 지출의 산업연관표상 분류에 따르면(<표4-13>참조) 관광객은 음식점 및 숙박에 전체 45,680원의 52.1%를 지출했고, 제주도민 역시 음식점 및 숙박에 전체 17,040원의 44.1%를 지출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3> 1인당 경비지출 대상품목별 지출액

(단위 : 원/인)

항 목	관광객	제주도민	산업연관표상 구분*
현지교통비 (주차비, 연료비, 대중교통비 등)	9,632	3,842	운수 및 보관
식음료비 (식사, 음료수 등)	10,780	7,050	음식점 및 숙박
쇼핑비 (축제기념품, 특산물 등)	4,840	2,105	도소매업
유흥비 (노래방, 술값 등)	4,155	2,003	사회 및 기타서비스
숙박비 (축제 때문에 숙박한 경우만)	13,020	460	음식점 및 숙박
기타 비용	3,253	1,580	사회 및 기타서비스
계	45,680	17,040	

주) 고성보·김태보·이돈재, 『제주지역의 산업연관모형 개발』, 제주발전연구원, 1999.12, pp.119-122 기준 적용 작성.

<표 4-14> 축제 관련 경비지출의 산업연관표상 분류

구 분	관광객		제주도민	
	지출액(원)	비율(%)	지출액(원)	비율(%)
운수 및 보관	9,632	21.1	3,842	22.5
도소매	4,840	10.6	2,105	12.4
음식점 및 숙박	23,800	52.1	7,510	44.1
사회 및 기타서비스	7,408	16.2	3,583	21.0
계	45,680	100.0	17,040	100.0

3. 축제 관련 예산투자의 산업별 분류

- 2004정월대보름 들불축제와 관련된 총예산투자액은 약 5억 5,700만원이다. 가장 많이 지출된 부문은 행사지원비가 4억 2,500만원으로 전체의 76.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재료비 8천 2백여만원(14.7%)의 순이다.

<표 4-15> 2004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집행내역	구 분	예산집행내역
행사 지원비	425,400	행사관련시설비	33,000
재료비	82,000	일시사역인부임	16,575
계	556,975		

<표 4-16> 산업연관표상 투자액 분류

(단위 : 백만원)

산업분류	번호	산업연관표상 분류	투자액*
1차 산업	7	화훼 및 비식용작물	4.5
2차 산업	15	섬유, 가죽제품	4.0
	16	목재, 종이제품	16.2
	17	인쇄, 출판 및 복제	40.5
	19	화학제품	33.5
	22	금속제품	6.0
	27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25.2
3차 산업	29	건설	45.0
	31	음식점 및 숙박	5.5
	33	통신 및 방송	31.0
	37	공공행정 및 국방	7.5
	38	사회 및 기타서비스	338.0
계			556.9

- <표 4-15>을 중심으로 하여 <표 4-16>과 같은 산업연관표상 투자액 분류표를 작성하였다. 부문별 분류를 보면, 사회 및 기타서비스 부문이 338백만원으로 전체 556.9백만원의 6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1. 파급경로 및 분석 방법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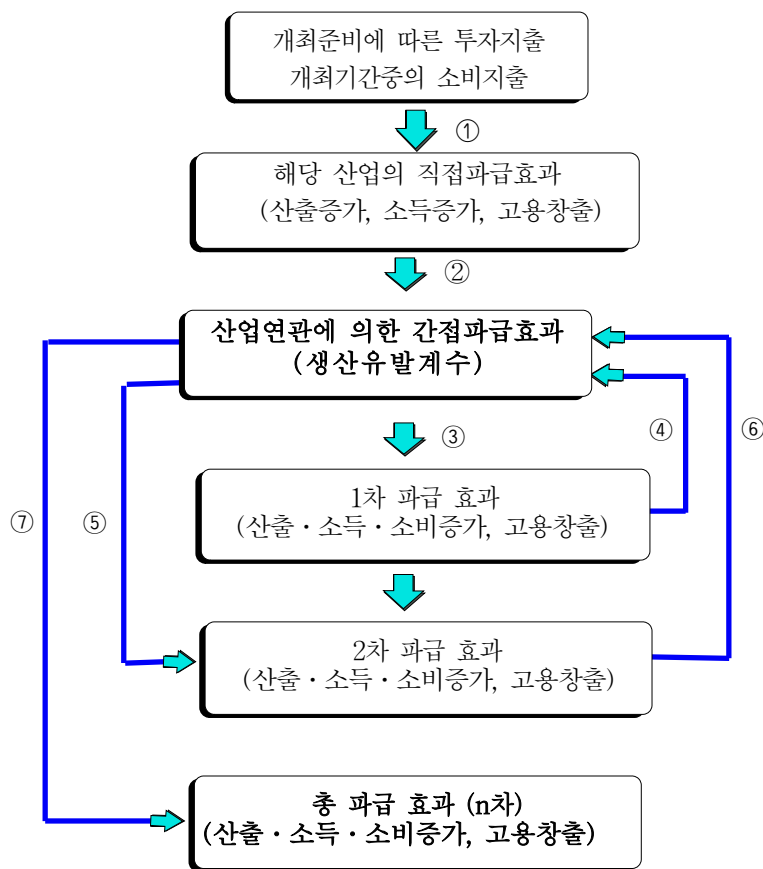
- 2004정월대보름 들불축제의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경로는 <그림 5-1>과 같이 개최 준비과정에서 제반시설을 위한 투자지출과 개최기간 중 소비지출의 증가가 발생한다. 이러한 투자 및 소비지출은 해당산업의 직접적인 생산증가와 함께 생산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추가적인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 즉,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중간재 투입에 대한 수요 외에 노동, 자본 등 기초 투입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켜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유발시키며, 해외 중간재 수요를 증대시켜 수입을 유발시킨다³⁾.
- 한편, 해당산업의 생산 증가는 이 산업이 중간재를 사용하는 산업의 생산증가를 초래하며, 이 과정에서 다시 부가가치와 고용을 유발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직접 및 간접적인 파급 효과는 생산활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 증가, 소비 증가의 연쇄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파급된다. 즉, 각 산업에 있어서의 생산 증가는 그 생산활동에 참가한 사람들의 소득을 높이고, 그 결과 소비를 증대시키며, 이 소비 증가가 다시 산업생산을 유발하는 연쇄과정으로 다른 산업에 n차까지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 파급효과의 분석에는 지역 및 국민경제의 흐름을 산업부문간의 투입 및 산출

2) 본절은 이춘근,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대구유치 타당성 분석』,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0.5.의 내용을 수정·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3) 한국개발연구원, 『2002년 월드컵축구 한국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 1995. pp. 50~54.

관계를 통해서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제주지역 산업연관모형은 한국은행에서 1999년에 발표한 『1995년 전국 산업연관표』를 지역가중치에 의한 방법과 공급-수요『풀』법(Supply-Demand Pool Approach)을 병용하여 작성한 『제주지역의 산업연관모형개발』⁴⁾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림 5-1> 2003정월대보름 들불축제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 경로



4) 고성보·김태보·이돈재, 『제주지역의 산업연관모형개발』, 제주발전연구원, 1999.12.

- 지역산업연관표에서 일연의 연립방정식체계로 역행렬을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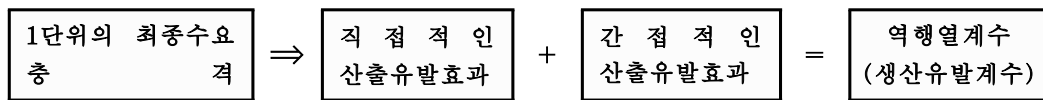
$$AX + F - M = X$$

$$X - AX = (F - M)$$

$$(I - A)X = (F - M)$$

$$X = (I - A)^{-1}(F - M)$$

- 위에서 X 는 지역산업 부문별 산출액 열 「벡터」, I 는 단위행렬, A 는 지역 투입계수행렬, F 는 지역최종수요 열 「벡터」, M 는 지역수입 열 「벡터」, 위의 $(I - A)$ 를 레온티에프 행렬이라 한다. $(I - A)^{-1}$ 를 생산유발계수행렬 또는 다부문 승수라고 하는데, 역행렬 $(I - A)^{-1}$ 를 $(I - A)^{-1} = B = (b_{ij})_{n \times n}$ 으로 표기 하면 b_{ij} 는 j 부문의 최종수요 1단위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i 부문의 재화 또는 용역의 직·간접 생산단위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1단위 최종수요 충격(impact)에 의해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낸다.



- 2004년 축제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의 생산유발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최에 따른 투자지출이 최종수요의 한 항목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업 서비스업 등의 최종수요가 유발하는 각 산업별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 즉, 수식은 $Q = (I - A)^{-1} \cdot F$ 가 되며, 여기서 Q 는 신규투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며, F 는 투자금액(최종수요)이다⁵⁾.
- 지역경제에 미치는 노동유발효과는 먼저 생산유발계수행렬에 노동계수(L)의 대각행렬을 곱하여 고용유발계수행렬을 작성한다. 노동계수는 제주지역의 산

5) R. E. Miller and P. D. Blair,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s and Extensions*, Prentice-Hall, Inc., 1985, pp.333~337.

업별 종사자 수를 산업별 총산출액으로 나눈 것이다. 노동계수는 1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만을 의미하지만, 고용유발계수는 생산의 파급과정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노동량을 계량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고용유발계수행렬에서 축제 개최에 따른 투자부문을 외생부문으로 처리한 후 해당부문의 최종수요 투자금액을 곱하면 자기 산업을 포함한 여타산업에 미치는 고용유발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⁶⁾.

- 지역경제에 미치는 소득유발효과는 생산유발계수행렬에 소득계수(Y)의 대각행렬을 곱하여 소득유발계수행렬을 작성한다. 소득계수는 제주지역 산업별 피용자들의 소득을 산업별 총산출액으로 나눈 것이다. 소득유발계수행렬에서 축제 개최에 따른 투자부문을 외생부문으로 처리한 후 해당부문의 최종수요 투자금액을 곱하면 자기 산업을 포함한 여타산업에 미치는 소득유발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2004년 들불축제가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은 관광수입 증대, 그리고 이러한 관광수입 증대와 축제와 관련된 투자비가 제주지역경제에 미치는 산출, 고용, 소득증대 효과로 구분하여 이뤄졌다.

가. 관광수입 증대에 미치는 효과

- 관광수입 증대효과는 내국인의 경우 약 77억원이고, 외국인인 경우 22억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여기에 제주도민의 약 31억원을 더하면 전체 관광수입증대에 미치는 효과는 약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 이 경우 생산유발계수행렬에 열벡터(해당 산업은 투자금액(impact)을 넣고, 기타부문은 제로로 넣음)를 곱해서 행으로 합계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

<표 5-1> 축제가 관광 및 도민지출 증대에 미치는 효과

(단위 : 백만원)

	도소매	음식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사회 및 기타서비스	합계
내국인	1,077.9	3,187.3	1,327.6	2,117.1	7,709.9
외국인	541.2	543.5	105.6	1,009.9	2,200.2
관광객 소계	1,619.1	3,730.8	1,433.2	3,127.0	9,910.1
제주도민	379.2	1,373.7	637.8	766.5	3,157.2
합계	1,998.3	5,104.5	2,071.0	3,893.5	13,067.3

나. 지역생산, 고용 및 소득증대에 미치는 효과

- 축제 개최에 따른 관광객 유입 증가는 관광수입의 증대와 시설투자, 그리고 제주도민의 관람 비용으로 지출된 소비증대는 산업간의 연관효과에 따라 지출 이상의 생산(산출) 및 고용증대, 그리고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가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 제4장에서 이미 각 산업부문으로 분류된 각 투자 및 소비지출 항목인, 1차산업관련 화훼 및 비식용작물 1개 부문, 2차산업 관련 섬유가죽제품, 인쇄·출판 및 복제, 화학제품, 전기·전자기기, 수송장비,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분야, 3차산업은 전력·가스 및 수도, 건설, 음식점 및 숙박, 통신 및 방송, 사회 및 기타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최종수요가 증대되면 곧 지역의 생산(산출)증대, 고용증대,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1) 지역생산(산출)에 미치는 효과⁷⁾

- 산출증대 효과는 내국인의 경우 약 108억원이고, 외국인인 경우 약 31억원으로 전체 관광객의 산출효과는 139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여기에 제주도민의 지출에 따른 산출효과인 약 44억원과 시설투자에 따른 산출효과 7.6억원을 더하면 전체적인 산출증대 규모는 약 191억원에 이르렀다.

<표 5-2> 2004년 축제가 지역생산(산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소계	제주도민	시설투자	합계
산출효과	10,847.0	3,097.2	13,944.2	4,394.8	766.0	19,105.0

2) 지역고용에 미치는 효과

- 고용증대 효과는 내국인의 경우 약 576명이고, 외국인은 약 149명으로 관광객 전체적으로 보면 724명에 이르는 고용창출효과가 추정되었다.
- 여기에 제주도민 지출에 따른 고용효과인 237명과 시설투자에 따른 고용효과 약 30명을 전체적인 고용증대 규모는 991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3> 2004년 축제가 지역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단위 : 명)

구 분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소계	제주도민	시설투자	계
고용효과	575.9	148.6	724.5	236.6	29.9	991.0

7) 구체적인 분석자료는 <부록>에 게재하였고, 여기에는 핵심적인 부분을 발췌하여 나타냈음.

3) 지역소득에 미치는 효과

- 지역소득 증대효과는 내국인의 경우 76억 8천만원이고, 외국인인 경우 약 21억 원으로 나타나, 관광객 전체적으로 보면 약 98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 여기에 제주도민 지출의 소득효과인 약 31억 원과 시설투자에 따른 산출효과 4억 7천만 원을 더하면 전체적인 소득증대 규모는 13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2004년 축제가 지역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소계	제주도민	시설투자	계
소득효과	7,681.5	2,109.9	9,791.4	3,145.2	470.4	13,407.0

VI. 종합 요약 및 정책 제언

1. 종합 요약

- 본 장에서는 2004정월대보름 들불축제의 제분야를 평가하면서 2003년 축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얼마나 개선되었고, 관람객들의 인식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가. 신문 보도 및 여론 분석

- 2004년 들불축제와 관련된 신문 보도 및 여론내용은 총 52건으로 2002년도의 37건에 비해 15건이 늘어 언론과 여론의 주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 내용별로도 긍정적인 내용은 4건에서 11건으로 크게 늘었고, 부정적인 내용은 전년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2003년 들불축제에 비해 상당히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표 6-1> 축제 관련 기사 및 여론내용 비교분석

구 분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		북군 홈페이지		합계	
	2003	2004	2003	2004	2003	2004	2003	2003	2003	2004
긍정적 내용	-	3건	2건	2건	1건	4건	1건	2건	4건 10.8%	11건 21.2%
부정적 내용	-	2건	2건	-	2건	-	1건	4건	5건 13.5%	6건 11.5%
홍보(캠페인) 내용	8건	10건	5건	6건	11건	17건	4건	2건	28건 75.7%	35건 67.3%
합계	8건 21.6%	15건 28.8%	9건 24.3%	8건 15.4%	14건 37.8%	21건 40.4%	6건 16.3%	8건 15.4%	37건 100%	52건 100%

나. 관람객 행태 분석

- 들불축제 참가한 관광객들의 방문목적은 분석한 결과 들불축제 참가가 첫번째 목적이었다는 응답자가 34%로 2002년의 32.1%, 2003년의 31.5%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부수적 목적이라는 응답 비율과 우연한 방문이라는 비율 역시 다소 높아져 들불축제가 관광객을 유인하는 흡입력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표 6-2> 축제 방문목적에 대한 비교분석

구 분	첫번째 목적	부수적 목적	우연한 방문
2002년	34명(32.1%)	23명(21.7%)	49명(46.2%)
2003년	33명(31.5%)	35명(33.3%)	37명(35.2%)
2004년	54명(34.0%)	47명(29.6%)	58명(36.5%)

- 들불축제 정보원에 대해서는 2002년, 2003년 들불축제와 마찬가지로 2004년 축제의 경우에도 TV(43.5%)와 지인(24.7%)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특이한 것은 현수막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 축제 정보원에 대한 비교분석

구 분	텔레비전	지인	현수막	신문	여행사
2002년	192명(39.2%)	106명(21.6%)	63명(12.9%)	40명(8.2%)	16명(3.3%)
2003년	154명(31.8%)	150명(30.9%)	46명(9.5%)	28명(5.8%)	21명(4.3%)
2004년	183명(43.5%)	104명(24.7%)	22명(5.2%)	25명(5.9%)	19명(4.5%)

- 축제참가 결정여부는 친구/동료(31.8%)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은 변함이 없었지만 가족(30.4%)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응답이 높아져 가족단위 관람객의 증가를 추정할 수 있다.

<표 6-4> 축제참가 결정여부에 대한 비교분석

구 분	가족	친구/동료	본인	회사/단체
2002년	209명 (42.3%)	110명(22.3%)	100명(20.2%)	53명(10.7%)
2003년	132명(27.4%)	183명 (38.0%)	94명(19.5%)	60명(12.4%)
2004년	128명(30.4%)	134명 (31.8%)	62명(14.7%)	72명(17.1%)

- 2004년 축제의 관람여부 결정시기는 3~4일전과 1주일 이전 결정이 동시에 가장 높게 나타나 계획적 참가관람객이 해마다 늘어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참가결정이 1주일을 전후로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이 시기에 특별한 이벤트나 홍보전략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크다.

<표 6-5> 축제참가 결정시기에 대한 비교분석

구 분	당일	3~4일전	1주일 이전	1개월 이전
2002년	148명 (30.0%)	136명(27.6%)	118명(23.9%)	52명(10.5%)
2003년	109명(22.5%)	119명 (24.5%)	121명(24.9%)	89명(18.4%)
2004년	94명(22.3%)	127명 (30.2%)	127명 (30.2%)	46명(10.9%)

- 들불축제 참가회수는 2004년의 경우에도 2002년, 2003년도와 마찬가지로 처음(54.9%)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대응이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 축제 참가회수에 대한 비교분석

구 분	처음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이상
2002년	303명 (61.6%)	108명(22.0%)	51명(10.4%)	30명(6.1%)
2003년	257명 (53.0%)	111명(22.9%)	71명(15.1%)	41명(8.4%)
2004년	231명 (54.9%)	107명(25.4%)	55명(13.1%)	28명(6.7%)

- 들불축제의 지속적인 육성여부에 대해서는 찬성(52.0%), 적극 찬성(20.7%)로 나타나 응답자의 72% 이상이 향후에도 들불축제를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는 2002년, 2003년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부터 지속적인 육성을 지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 축제육성에 대한 찬반여부 비교분석

구 분	적극 찬성	찬성	반대	적극 반대
2002년	167명(33.9%)	233명 (47.4%)	14명(2.8%)	6명(1.2%)
2003년	150명(30.9%)	225명 (46.4%)	13명(2.7%)	11명(2.3%)
2004년	87명(20.7%)	219명 (52.0%)	27명(6.4%)	4명(1.0%)

- 들불축제 재방문 여부에 대해서 재방문하겠다(53.6%)와 반드시 재방문하겠다(13.1%)로 재방문 의사를 보인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재방문 않겠다(9.5%)는 응답 또한 2003년의 6%에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교통체증에 따른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표 6-8> 축제 재방문 의사에 대한 비교분석

구 분	반드시 재방문 하겠다	재방문 하겠다	재방문 안하겠다	절대 재방문 안하겠다
2002년	69명(14.0%)	285명(57.9%)	39명(7.9%)	9명(1.8%)
2003년	59명(12.2%)	285명(58.8%)	29명(6.0%)	5명(1.0%)
2004년	55명(13.1%)	226명(53.6%)	40명(9.5%)	5명(1.2%)

다. 관람객 만족도 분석

- 2004년 들불축제에 대한 관람객들의 상대적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2003년에 비해서는 만족하는 관람객들의 비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 행사내용의 다양성이나 참여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다만 불만족 한다는 관람객이 만족한다는 관람객 보다 많은 경우는 아니어서 조금만 개선하면 만족도를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문제는 기념품 종류의 다양성 가격,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관람객 보다 불만족하는 관람객이 더 많으면서 전년도 보다 만족도가 하락한 부분이다. 때문에 들불축제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의 하나로 관련 기념품의 개발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6-9> 관람객들의 축제 만족도 비교분석

구 분	2003년 들불축제 조사결과		2004년 들불축제 조사결과		만족도 비교
	긍정	부정	긍정	부정	
행사장까지의 접근성	264명 (54.4%)	113명 (23.2%)	192명 (46.1%)	99명 (23.5%)	▼
사전홍보에 의한 정보	221명 (45.6%)	163명 (33.6%)	175명 (41.6%)	123명 (29.3%)	□
안내시설	145명 (29.9%)	193명 (39.8%)	154명 (36.6%)	119명 (28.3%)	△
행사 관련 팸플렛	126명 (26.0%)	205명 (42.3%)	154명 (36.6%)	129명 (30.6%)	△
안내요원들의 서비스	153명 (31.6%)	153명 (31.6%)	176명 (41.7%)	86명 (20.5%)	△
행사내용의 재미	193명 (39.7%)	128명 (26.4%)	166명 (39.4%)	94명 (24.4%)	□
행사내용의 다양성	205명 (42.3%)	108명 (22.3%)	156명 (37.3%)	110명 (26.2%)	▼
참여프로그램	155명 (32.0%)	159명 (32.8%)	130명 (30.9%)	153명 (36.4%)	▼
지역문화의 이해	226명 (46.6%)	134명 (27.6%)	136명 (32.3%)	131명 (31.2%)	▼
기념품 종류의 다양성	94명 (19.4%)	204명 (42.1%)	90명 (21.5%)	179명 (42.7%)	△
기념품의 품질	87명 (18.0%)	188명 (38.7%)	55명 (13.1%)	173명 (41.2%)	▼
기념품 가격의 적정성	79명 (16.3%)	209명 (43.2%)	55명 (13.1%)	222명 (52.7%)	▼
음식종류의 다양성	188명 (57.0%)	128명 (26.4%)	137명 (32.5%)	150명 (35.7%)	▼
음식의 가격과 질	106명 (21.9%)	180명 (37.2%)	85명 (20.2%)	198명 (47.0%)	▼
휴식공간의 구비	99명 (20.4%)	248명 (51.1%)	84명 (20.0%)	218명 (51.8%)	□
화장실의 청결성	120명 (24.7%)	219명 (45.1%)	90명 (21.3%)	191명 (45.4%)	▼
주차장 시설	245명 (50.5%)	117명 (24.2%)	174명 (41.4%)	111명 (26.4%)	▼
주변관광지 방문 의향	224명 (46.3%)	106명 (21.9%)	162명 (38.5%)	101명 (23.9%)	▼
전체 만족도	215명 (44.3%)	83명 (17.1%)	154명 (36.6%)	98명 (23.3%)	▼

주) △는 만족도 상승, ▼는 만족도 하락, □는 현상유지 수준을 나타냄.

라. 관광객 수요 및 소비 분석

- 들불축제 기간중의 전체 관람객 수는 개방형 축제라 집계가 어렵고,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지만 2가지 이상의 산정방식을 이용한 결과 2003년 보다 10만여명이 증가한 약 20만 5천여명으로 추정된다.
- 전체 관람객 중 관광객 수는 자동차 대수 산정 방식과 설문조사 비율에 의한 결과를 종합할 때 약 2만 5천여명으로 추정되었다.
- 2004년 들불축제 참가를 위해 관람객들이 지출한 비용은 관광객인 경우에는 45,680원, 도민의 경우에는 17,040원으로 추정되어 전체적으로는 1인당 약 3만 1천여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만한 것은 도민들의 소비액의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는 결과이다.

<표 6-10> 축제가 관광객 증대에 미치는 효과 비교분석

구 분	내국인		외국인		전체 관광객 증가 추정치	
	2003	2004	2003	2004	2003	2004
관광객 수	21,353명	24,002명	889명	1,268명	22,242명	25,270명
전체 관람객	2003		2004			
	105,410명		205,400명			
관람객 지출비용	2003		2004			
	관광객	제주도민	관광객	제주도민		
	44,704원	17,484원	45,680원	17,040원		

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관광수입 증대효과는 내국인관광객의 경우 약 77억원, 외국인관광객의 경우 22억원, 여기에 제주도민의 지출액 약 31억원을 합산하면 13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4년 들불축제의 관광수입 증대효과를 2003년 들불축제와 비교할 경우 금액으로는 약 87억원이 증가한 것이고, 투자한 예산대비 효과 면에서도 2003년의 5~7배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표 6-11> 관광수입 증대효과 비교분석 (단위 : 백만원)

관광수입효과		내국인	외국인	제주도민	합계
연도별	2002	3,529.9	516.4	2,468.1	6,514.4
	2003	2,364.3	529.2	1,454.1	4,347.6
	2004	7,709.9	2,200.2	3,157.2	13,067.3

- 지역생산(산출) 증대효과는 내국인관광객의 경우 약 100억원, 외국인관광객의 경우 약 31억원, 여기에 제주도민 지출의 산출효과인 약 44억원과 시설투자에 따른 산출효과 7.6억원을 더하면 전체적인 산출증대 규모는 19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04년 들불축제의 지역생산(산출) 증대효과를 2003년 들불축제와 비교할 경우 금액으로는 약 120억원이 증가한 결과이다.

<표 6-12> 생산(산출)증대효과 비교분석 (단위 : 백만원)

생산효과		내국인	외국인	제주도민	시설투자	합계
연도별	2002	4,224.3	727.0	3,547.0	546.1	9,044.3
	2003	2,857.3	744.9	2,406.1	653.9	6,662.2
	2004	10,847.0	3,097.2	4,394.8	766.0	19,105.0

- 지역고용 증대효과는 내국인관광객의 지출에 의해 약 576명, 외국인관광객은 149명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제주도민 지출의 고용효과인 237명과 시설투자에 따른 고용효과 30을 더하면 전체 991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04년 들불축제의 지역고용 증대효과를 2003년 들불축제와 비교할 경우 평균 약 550여명이 증가한 것이다.

<표 6-13> 고용증대효과 비교분석 (단위 : 명)

고용효과		내국인	외국인	제주도민	시설투자	합 계
연도별	2002	224.4	34.9	193.5	21.8	474.6
	2003	151.9	35.7	129.5	25.7	342.8
	2004	575.9	148.6	236.6	29.9	991.0

- 지역소득 증대효과는 내국인관광객의 지출에 의해서는 약 77억원, 외국인관광객의 경우 21억여원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제주도민 지출의 소득효과인 31억여원과 시설투자에 따른 산출효과 4.7억원을 더하면 전체적인 소득증대 규모는 134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4년 들불축제의 지역소득 증대효과를 2003년 들불축제와 비교할 경우 금액으로는 약 95억원이 증가한 것이고, 투자한 예산대비 효과 면에서도 2003년의 5~7배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표 6-14> 소득증대효과 비교분석 (단위 : 백만원)

소득효과		내국인	외국인	제주도민	시설투자	합 계
연도별	2002	3,008.5	495.2	2,559.7	326.1	6,389.5
	2003	2,035.5	507.4	1,722.3	385.1	4,650.3
	2004	7,681.5	2,109.9	3,145.2	470.4	13,407.0

바. 종합 평가

- 이상 전체 관람객 및 관광객의 규모, 관람객 행태 및 만족도, 지역경제 과급 효과 등을 지난 2003년 들불축제와 비교분석한 결과 2004정월대보름 들불축제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부족한 부분도 나타났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 첫째, 2003년 축제에 비해 지역경제과급효과가 3배 이상 증가할 만큼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했다고 볼 수 있다.
 - 둘째, 재방문 의사, 지속적인 축제육성의 지지 등 여전히 들불축제의 발전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 셋째, 관광상품으로의 개발 시도, 도외에서의 사전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가 증명되었다는 점이다.

2. 정책제언

- 앞서 종합평가에서 보았듯이 2003정월대보름 들불축제는 관람객의 만족도 및 지역경제에의 과급효과, 언론 및 여론 내용, 참관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과거 축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목표로 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 축제 운영 종합계획의 재수립

- 2004년 들불축제장 역시 축제장 내부에 난립한 차들로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2일간 많은 프

로그램을 소화하기 위한 동시다발적 운영이 비판받는 상황이다.

- 따라서 귀빈 여부를 막론하고 축제장 내부에는 차량출입을 금지해야 하고, 프로그램 역시 약간의 간격을 두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관람객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또한 관람객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참여프로그램의 개발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달집 태우기 행사 등 일부 귀빈만이 참여하는 행사에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편, 들불축제가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축제에서 제외된 이유는 축제기간이 짧은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는 현실에서 향후에는 축제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축제기간의 연장은 들불축제장의 공원화 전략과 병행해서 검토하면 보다 현실성이 클 수 있다.

나. 새로운 교통대책의 개발

- 축제 후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사후이벤트 등의 방안도 시도됐지만 극심한 교통혼잡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 따라서 2002, 2003년 평가보고서에서 지적된 시간대별 승용차의 운행제한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주차장별로 다른 색깔의 형광선으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
- 특히 주차장과 축제장을 왕래하는 관람객들의 도로횡단은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지하통행로 등의 시설 여부도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
- 또한 오름태우기 이후 경품추첨 행사나 짧은 층을 위한 공연 등 후속행사를 보다 더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다. 들불축제의 본격적인 브랜드화

- 관람객 만족도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들불축제의 기념품과 관련하여 종류의 다양성, 품질, 가격 등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향후 들불축제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들불축제를 브랜드화하는 다양한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 여행상품으로의 개발 확대, 다양한 기념품의 개발, 축제기간 동안의 지역특산품전의 개최 등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라. 기상악화 대비책의 사전수립

- 2004년 들불축제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은 과거 어느 때 보다는 포근했던 날씨가 관람객을 끌어 모으는데 일조를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바꾸어 말하면 야외축제라는 특성상 2003년의 경우처럼 기상악화에 따라 축제의 성패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따라서 비나 바람, 눈 등 기상악화에 대비한 대책은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마. 들불축제공원화 추진

- 2002, 2003년 평가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새별오름 일대를 들불축제공원화하여 축제기간 이외에도 북제주군의 관광명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봐야 한다.
- 다행히 북제주군이 일부 사유지를 매입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축제기간 이외에도 주민과 관광객들이 오름을 경험하는 학습장과 휴식공간인 공원으로 활용한다면 축제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 고성보 · 김태보 · 이돈재, 『제주지역의 산업연관모형 개발』, 제주발전연구원, 1999.12.
- 김규호 · 김사현, “지역산업연관모형에 의한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관광학연구』 제22권 1권, 1998.
- 동국대 관광산업연구소, 『'98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 1998.11. 세미나 자료.
- 이충기, “2002 월드컵 개최에 따른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산업연관(Input-Output)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22권 3호, 한국관광학회, 1999.
- 제주도, 『통계연보』, 각년도
- 제주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0.
- 제주발전연구원, 『2003정월대보름 들불축제 평가보고서』, 2002.3.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관광통계 작성에 관한 연구』, 2000.2.
- 제주도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관광진흥기본계획』, 2000.10.
- (사)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2001 제주세계섬문화축제 결과보고서』, 2001.7
- 통계청 internet site <http://www.nso.go.kr>
-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에 관한 투입-산출분석』, 1993.
- R. E. Miller and P. D. Blair,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s and Extensions*, Prentice-Hall, Inc., 1985.

□ 부 록 □

1. 설문지
2. 부 표

--	--	--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2004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대해 만족·불만족 요인 등 관람객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반 문제점과 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점과 보다 발전된 축제로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각 질문항목에 대하여 느끼신 점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의견은 앞으로 들불축제를 보다 나은 축제로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2004정월대보름 들불축제를 평가하기 위한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개인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2004. 1.

조사기관: (재)제주발전연구원

연구책임 신동일

TEL) 064) 751-5166~7

FAX) 064) 751-2168

조사의뢰: 북제주군

♠ 질문항목에 해당되는 번호에 '○' 또는 '√'표를 해주시거나 물음에 따라 빈칸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1.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① 북제주군 ② 제주도(북제주군 제외) ③ 타 시·도 ④ 외국 및 기타
2. 이번 들불축제 관람여부의 결정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① 당일 ② 3~4일 이전 ③ 일주일 이전 ④ 1개월 이전 ⑤ 3개월 이전
3. 귀하께서 이번 들불축제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① 텔레비전 ② 라디오 ③ 신문 ④ 여행사
⑤ 아는 사람 ⑥ 현수막 ⑦ 인터넷 ⑧ 기타()
4. 이번 들불축제 관람여부의 결정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습니까?
① 자기 자신 ② 가족 ③ 친구/동료 ④ 회사/친목단체
⑤ 여행사 ⑥ 기타()
5. 이번 들불축제 관람을 위해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① 자기 혼자 ② 가족 ③ 친구(연인 포함) ④ 회사동료
⑤ 친목단체 ⑥ 기타()
6. 이번 들불축제 관람은 몇 번째입니까?
① 처음 ② 두번째 ③ 세번째 ④ 네번째 ⑤ 다섯번째 이상
7. 오늘 축제장 안에서 소비한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① 2시간 미만 ② 2~3시간 ③ 4~5시간 ④ 5~6시간 ⑤ 6시간 이상
8. (관광객인 경우) 귀하는 들불축제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① 첫번째 목적 ② 부수적 목적 ③ 우연한 방문

9. (관광객인 경우)제주도에 얼마 동안 머무르실 예정이십니까?

- ① 당일 ② 1박2일 ③ 2박3일 ④ 3박4일 ⑤ 4박5일 이상

10. 앞으로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를 계속 발전시켜야 한데 동의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적극 반대	반대	약간 반대	보통	약간 찬성	찬성	매우 찬성

11. 내년 혹은 가까운 장래에 들불축제를 다시 관람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없다	없다	조금 없다	보통	약간 있다	있다	매우 많다

12. 다음은 이번 들불축제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 또는 '√'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용		만족도	만족도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접근성	축제행사장까지 쉽고 편하게 찾아올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홍보 · 안내	사전홍보를 통해 축제의 내용 및 일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행사장내 안내시설이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행사관련 팸플렛이 충실하고 잘 비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행사장내 안내요원들의 서비스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내용		만족도	평가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행사 내용	행사내용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행사내용이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직접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축제를 통해 지역문화를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축제 상품	축제관련 기념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념품의 품질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념품 가격이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음식 (먹거리)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음식의 가격이 적당하고, 질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축제와 어울리는 음식이 판매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편의 시설	휴식공간(벤치, 휴게실)이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화장실이 청결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차장이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	주변의 유명한 관광지도 방문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들불축제는 건강과 무사안녕 등 한 해의 소망을 비는 세시풍속입니다.

귀하는 금번 축제에서 어떤 소망을 기원하셨거나 기원하실 예정이십니까?

- ① 건강 ② 경제적 풍요 ③ 승진 ④ 국가장래 ⑤ 기타()

14. 다음은 귀하께서 들불축제에 참여하시기 위해 혹은 참여하시는 동안 지출하신 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목별로 정확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기준인원 : 1인당

소 비 항 목	지 출 액	비 율
① 현지교통비(주차비, 연료비, 대중교통비 등)	원	%
② 식음료비(식사, 음료수 등)	원	%
③ 쇼핑비(축제기념품, 특산물 등)	원	%
④ 유흥비(노래방, 술값 등)	원	%
⑤ 숙박비(축제 때문에 숙박한 경우만)	원	%
⑥ 기타 비용 : ()	원	%
계	원	%

15. 기타 들불축제의 문제점이나 장점 혹은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등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16. 귀하의 성별은? ① 남 성 ② 여 성

17. 귀하의 연령은?

- ① 20세 미만 ② 21 ~ 30세 ③ 31 ~ 40세 ④ 41 ~ 50세 ⑤ 50세 이상

18. 귀하의 학력은?

- ① 중졸 이하 ② 고등학교재/졸 ③ 대학재/졸 ④ 대학원재/졸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표 1> 2004년 들불축제가 지역산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국인	외국인	제주도민	시설투자	계
벼	0.0	0.0	0.0	0.0	0.0
맥류및잡곡	0.0	0.0	0.0	0.0	0.0
채소및과실	0.0	0.0	0.0	0.0	0.0
감귤	0.0	0.0	0.0	0.0	0.0
기타 식용작물	0.0	0.0	0.0	0.0	0.0
감자	0.0	0.0	0.0	0.0	0.0
화훼및비식용작물	0.0	0.0	0.0	5.4	5.4
축산	0.0	0.0	0.0	0.0	0.0
양돈	0.0	0.0	0.0	0.0	0.0
임산물	0.0	0.0	0.0	0.0	0.0
수산어획	0.0	0.0	0.0	0.0	0.0
수산양식	0.0	0.0	0.0	0.0	0.0
광산품	0.0	0.0	0.0	0.0	0.0
음식료품	0.0	0.0	0.0	0.0	0.0
섬유,가죽제품	0.0	0.0	0.0	4.9	4.9
목재,종이제품	0.0	0.0	0.0	20.8	20.8
인쇄,출판및복제	0.0	0.0	0.0	53.6	53.6
석유,석탄제품	0.0	0.0	0.0	0.0	0.0
화학제품	0.0	0.0	0.0	40.9	40.9
비금속광물제품	0.0	0.0	0.0	0.0	0.0
제1차금속	0.0	0.0	0.0	0.0	0.0
금속제품	0.0	0.0	0.0	7.0	7.0
일반기계	0.0	0.0	0.0	0.0	0.0
전기전자기계	0.0	0.0	0.0	0.0	0.0
정밀기구	0.0	0.0	0.0	0.0	0.0
수송장비	0.0	0.0	0.0	0.0	0.0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0.0	0.0	0.0	32.4	32.4
전력,가스및수도	0.0	0.0	0.0	0.0	0.0
건설	0.0	0.0	0.0	62.6	62.6
도소매	1,455.1	730.6	511.9	0.0	2,697.6
음식점및숙박	4,632.4	789.9	1,996.5	8.0	7,426.8
운수및보관	1,641.9	130.6	788.8	0.0	2,561.3
통신및방송	0.0	0.0	0.0	37.7	37.7
금융및보험	0.0	0.0	0.0	0.0	0.0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0	0.0	0.0	0.0	0.0
공공행정및국방	0.0	0.0	0.0	8.7	8.7
교육및보건	0.0	0.0	0.0	0.0	0.0
사회및기타서비스	3,117.6	1,446.1	1,097.6	484.0	6,145.3
총산출효과	10,847.0	3,097.2	4,394.8	766.0	19,105.0

<부표 2> 2004년 들불축제가 지역고용에 미치는 효과분석

(단위 : 명)

구 분	내국인	외국인	제주도민	시설투자	계
벼	0.0	0.0	0.0	0.0	0.0
맥류및잡곡	0.0	0.0	0.0	0.0	0.0
채소및과실	0.0	0.0	0.0	0.0	0.0
감귤	0.0	0.0	0.0	0.0	0.0
기타 식용작물	0.0	0.0	0.0	0.0	0.0
감자	0.0	0.0	0.0	0.0	0.0
화훼및비식용작물	0.0	0.0	0.0	0.2	0.2
축산	0.0	0.0	0.0	0.0	0.0
양돈	0.0	0.0	0.0	0.0	0.0
임산물	0.0	0.0	0.0	0.0	0.0
수산어획	0.0	0.0	0.0	0.0	0.0
수산양식	0.0	0.0	0.0	0.0	0.0
광산품	0.0	0.0	0.0	0.0	0.0
음식료품	0.0	0.0	0.0	0.0	0.0
섬유,가죽제품	0.0	0.0	0.0	2.3	2.3
목재,종이제품	0.0	0.0	0.0	0.7	0.7
인쇄,출판및복제	0.0	0.0	0.0	2.0	2.0
석유,석탄제품	0.0	0.0	0.0	0.0	0.0
화학제품	0.0	0.0	0.0	0.6	0.6
비금속광물제품	0.0	0.0	0.0	0.0	0.0
제1차금속	0.0	0.0	0.0	0.0	0.0
금속제품	0.0	0.0	0.0	0.4	0.4
일반기계	0.0	0.0	0.0	0.0	0.0
전기전자기계	0.0	0.0	0.0	0.0	0.0
정밀기구	0.0	0.0	0.0	0.0	0.0
수송장비	0.0	0.0	0.0	0.0	0.0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0.0	0.0	0.0	3.7	3.7
전력,가스및수도	0.0	0.0	0.0	0.0	0.0
건설	0.0	0.0	0.0	0.9	0.9
도소매	69.1	34.7	24.3	0.0	128.1
음식점및숙박	348.8	59.5	150.4	0.6	559.3
운수및보관	49.1	3.9	23.6	0.0	76.6
통신및방송	0.0	0.0	0.0	0.8	0.8
금융및보험	0.0	0.0	0.0	0.0	0.0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0	0.0	0.0	0.0	0.0
공공행정및국방	0.0	0.0	0.0	0.8	0.8
교육및보건	0.0	0.0	0.0	0.0	0.0
사회및기타서비스	108.9	50.5	38.3	16.9	214.6
총고용효과	575.9	148.6	236.6	29.9	991.0

<부표 3> 2004년 들불축제가 지역소득에 미치는 효과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국인	외국인	제주도민	시설투자	계
벼	0.0	0.0	0.0	0.0	0.0
맥류및잡곡	0.0	0.0	0.0	0.0	0.0
채소및과실	0.0	0.0	0.0	0.0	0.0
감귤	0.0	0.0	0.0	0.0	0.0
기타 식용작물	0.0	0.0	0.0	0.0	0.0
감자	0.0	0.0	0.0	0.0	0.0
화훼및비식용작물	0.0	0.0	0.0	2.6	2.6
축산	0.0	0.0	0.0	0.0	0.0
양돈	0.0	0.0	0.0	0.0	0.0
임산물	0.0	0.0	0.0	0.0	0.0
수산어획	0.0	0.0	0.0	0.0	0.0
수산양식	0.0	0.0	0.0	0.0	0.0
광산품	0.0	0.0	0.0	0.0	0.0
음식료품	0.0	0.0	0.0	0.0	0.0
섬유,가죽제품	0.0	0.0	0.0	33.0	33.0
목재,종이제품	0.0	0.0	0.0	10.3	10.3
인쇄,출판및복제	0.0	0.0	0.0	27.7	27.7
석유,석탄제품	0.0	0.0	0.0	0.0	0.0
화학제품	0.0	0.0	0.0	11.0	11.0
비금속광물제품	0.0	0.0	0.0	0.0	0.0
제1차금속	0.0	0.0	0.0	0.0	0.0
금속제품	0.0	0.0	0.0	6.6	6.6
일반기계	0.0	0.0	0.0	0.0	0.0
전기전자기계	0.0	0.0	0.0	0.0	0.0
정밀기구	0.0	0.0	0.0	0.0	0.0
수송장비	0.0	0.0	0.0	0.0	0.0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0.0	0.0	0.0	42.5	42.5
전력,가스및수도	0.0	0.0	0.0	0.0	0.0
건설	0.0	0.0	0.0	13.6	13.6
도소매	954.7	479.4	335.9	0.0	1,770.0
음식점및숙박	4,301.8	733.5	1,854.0	7.4	6,896.7
운수및보관	653.6	52.0	314.0	0.0	1,019.6
통신및방송	0.0	0.0	0.0	15.4	15.4
금융및보험	0.0	0.0	0.0	0.0	0.0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0	0.0	0.0	0.0	0.0
공공행정및국방	0.0	0.0	0.0	17.5	17.5
교육및보건	0.0	0.0	0.0	0.0	0.0
사회및기타서비스	1,771.4	845.0	641.3	282.8	3,540.5
총소득효과	7,681.5	2,109.9	3,145.2	470.4	13,407.0

2004정월대보름 들불축제 평가보고서

인 쇄 일 2004. 2

발 행 일 2004. 2

발 행 인 고 충 석(제주발전연구원장)

발 행 처 제주발전연구원

인 쇄 처 으뜸출판문화사(☎ 724~4818)

ISBN 89-88021-33-9 933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